

ISSN 2093-0844



월간

#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July  
**2012. 7**

ISSUE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 Chungnam Economic Trends

## CONTENTS

<b>ISSUE</b>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3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18

<b>경제동향</b>	충남경제동향 (요약)	29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해외경제동향 (요약)	48
	1. 미국	3. 일본
	2. 중국	4. 유로지역

<b>경제일지</b>	충남경제일지	55
-------------	--------	----

<b>경제지표</b>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3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5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7

<b>부록</b>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83
	2.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85





#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노 희 순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형 빈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시장 상황

- 통상 주택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시장은 경제 요인, 정책 요인, 개발요인에 의해 수급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가격변동 및 거래량이 변동함
- 2000년 이후 주택시장의 흐름은 4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A 시기(2000~2002) : 주택시장 최대 호황기 / 수도권 공급 중심
  - B 시기(2003~2006) : 주택시장 상승 유지기 / 지방 공급 확대
  - C 시기(2007~2010) : 주택시장 정체 전환기 / 지방 미분양 급증 및 지방시장 중심 침체
  - D 시기(2011~현재) : 주택시장 침체기 / 수도권 중심 침체, 지방시장 가격 및 거래 회복
- 주택시장 요인의 영향정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개발요인<sup>1)</sup>은 세부시장에 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경기방향성은 구매력을 대변하는 경제요인과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음
  - 2000년 이후 주택시장은 주로 경제요인에 의한 영향 위에 주택정책에 의한 추가적인 영향을 받음
  - [A~B 시기] : 자금의 유동성과 투자심리에 의해 부동산정책 영향력이 작았음  
: 경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던 시기로, 국내 경제회복과 세계경제 호황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택소비여력이 높았음. 특히, A시기는 IMF사태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고 세계경제는 BRICs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마켓이 세계경제를 견인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투자와 유동성이 증가했음

1) 개발요인은 대규모택지개발 형태인 보금자리지구, 신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개발 등과 재개발재건축 형태 뉴타운개발 등이 있으나 세부시장별로 차별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향후 충남시장에 영향이 큰 세종시 개발 및 특별자치구 지정에 한정하여 검토.

: 주택시장의 경우도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주택가격이 급격히 회복되었음.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투자심리 회복과 결합하면서 견고한 소비심리(주택 구매심리, 대형 및 고분양가 주택 구매선호 심리)가 형성됨. 견고한 소비심리는 2003년 이후 시장과열우려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B시기까지 유지됨

: B시기에는 수도권외의 규제를 피한 민간의 지방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지방시장이 확대되는 양상 및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C 시기]: **부동산정책 영향이 발현되고 경제적 충격이 있던 시기**

: 2007년 이후 각종 규제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단기적 공급실적은 증가한데 반해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었으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이후 가격하락이 나타남

: 투자심리에 의해 과잉공급이 나타났던 지방을 시작으로 미분양이 누적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전국적인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했음

: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가격하락 충격은 타 국가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곧 회복하였으나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등의 충격은 크게 나타남

: 경제적 충격과 정권 교체에 따라 부동산정책기조가 규제에서 완화로 전환되었으나 경제적 영향에 의한 구매력 저하 및 소비심리악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책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음

- [D 시기]: **대내외 경제 침체로 정책방향설정이 어렵고 정책영향이 어려운 시기**

: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재정위기, 이머징마켓의 성장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위주의 국내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국내경기의 회복에 따른 주택소비여력의 확보는 요원한 상황

: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완화되고 있으나, 규제완화 타이밍과 시장요구가 불일치하면서 효과가 적었으며 추가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부양 vs 경제안정 간에 정책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임. 정책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전환할 정도의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 기조 유지를 지속할 경우, 유동성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기업/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안정에는 부정적임

- 2007년 이후 주택시장은 관점에 따라 안정기 혹은 정체/침체기로 인지할 수 있으나 시장관점에서는 안정기보다 정체/침체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안정기의 주택시장을 물가상승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과 일정수준의 거래로 가정했을 때, 최근 가격상승세 둔화는 가격측면을 충족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면서 거래측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임

## 2. 최근 주요 주택정책 변화

- 주택정책과 요구수준의 차이는 정부와 시장의 관점 차이 때문이나 거래 침체에 따라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경제 vs 주택시장, 전국 vs 개별시장, 공급자 vs 수요자, 자가가구 vs 차가가구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해야하나 시장은 주택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거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시장요구를 정부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 시장에서 정책을 보는 입장도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활성화로 이원화되어 첨예하게 대립
  - 다만, 주택시장이 수요자 중심, 임차시장+소형규모중심=수익형 부동산 중심, 지역개발 및 수요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세부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정부 및 시장 모두 공감하고 있음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2.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구 분	추진과제
과도한 규제 정상화	① 강남3구 주택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2012.5) ②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012.7), 보증자리주택 거주주의무기간 완화(2012.8) ③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2012.7) ④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종과세율 완화(2012년 중) ⑤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폐지(2012년 중) ⑥ 분양가 상한제 폐지(2012년 중) ⑦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2012년 중)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⑧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지원 확대(2012.5) 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2012.5) ⑩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 확대(2012.6) ⑪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2012.7) ⑫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2012.7)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⑬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2012.5) ⑭ 도시형생활주택 기금지원 확대(2012.5), 건설규제 완화(2012.7) ⑮ 1:1 재건축시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탄력적용(2012.8) ⑯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2012년 중) ⑰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확대(2012년 중) ⑱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택지처리 지침 2012.5/주택법시행령 2012.7)

주 : ( )는 추진 일정 / 볼드는 법률 개정으로 국회통과 필요.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시장과열기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구해제, 의무기간완화, 중과세율 폐지, 기금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면적/세대수 기준 폐지/완화 등을 2012년 내에 추진
- 주택정책은 2000년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주택거래·공급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실수요자 대상으로 자금·세제 등 관련 지원을 확대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와 도시 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1)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

-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됨
  - 2011.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1) 1세대3주택자(60%) 및 2주택자(50%)에게 부과되던 양도세율 기본세율(6~38%)로 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인 양도세가 중과 범위(1세대2주택)도 삭제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40%, 2년 미만은 40%→기본세율로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내용 입법예고
  - 5.10 대책의 후속조치로 1)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3)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예외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 입법예고

후속조치1 (2012.5.16/기획재정부)

구 분		내 용
2011.12.7 대책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50%→40% : 소득세법 1~2년 40%→기본세율(6~38%) : 소득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범위 삭제	3주택 이상(60%)→기본세율 : 소득세법 2주택자(50%)→기본세율 : 소득세법 양도세 중과 1세대 2주택자 범위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2012.5.10 대책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3년→2년 :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3년 :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2년→3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 : 붉은 글씨는 국회통과 필요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이 6월 입법 예고됨
  -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진행 중

#### 후속조치2 (2012.6.18/국토해양부)

구 분	내 용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sup>1)</sup>	<b>[개선안]</b>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자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 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table><tr><th>현 행</th><th>개 선 안</th></tr><tr><td>○ 20세대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 적용 (적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 광특구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공 동주택</td><td>○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 * 현행 적용제외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제외</td></tr></table>	현 행	개 선 안	○ 20세대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 적용 (적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 광특구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공 동주택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 * 현행 적용제외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제외	<table><tr><td>○ 기준안 (대통령령안) -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td><td>○ 절차안(대통령령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td></tr></table>	○ 기준안 (대통령령안) -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 절차안(대통령령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현 행	개 선 안						
○ 20세대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 적용 (적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 광특구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공 동주택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 * 현행 적용제외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제외							
○ 기준안 (대통령령안) -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 절차안(대통령령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b>[기대효과]</b>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주택 전매제한 제도 개선	<b>[개선안]</b>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							
	<b>[기대효과]</b>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발생 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기타	<b>[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중지]<sup>1)</sup></b> 2014.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 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							
	<b>[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sup>1)</sup></b>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축법상 재 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 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							

주 1) 국회통과 필요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주요 정책이 입법 예고되고 있으나 국회통과 후 시행되는 법률과 관련된 주요정책은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 논리에 의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2) 시장추가요구 주택정책1 : 수요여력 확보 및 거래 선순환을 위한 DTI 규제 완화 추가 요구

- “가계부채 증가” vs “주택시장 침체” 관점에서 DTI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연구<sup>2)</sup>에 따르면, DTI 규제가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주택가격 침체가 DTI 규제 효과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여력 하락 및 주택소비심리 약화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DTI 규제 내용

구 분		내 용		
목적	근본 목적	대출인의 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가계 및 금융기관의 금융 건전성 확보		
	주택정책적 목적	가계의 레버리지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성 주택소비를 제한하고 수요의 집중에 따른 가격 양등 제한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 DTI 규제 시행 후 2010년 DTI규제의 한시적 완화</li> <li>• 2010년 8.29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수단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2011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li> <li>• 2011년 4월 : DTI 규제 부활</li> <li>• 2011년 12월 :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DTI 규제 완화 적용</li> </ul>			
대상 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주택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분양주택, 재고주택</li> <li>• 집단대출, 미분양, 기금대출은 배제</li> </ul>		
대상 지역	수도권	투기지역	서울(투기지역 제외)	인천·경기
대출 금액	1억원 초과 담보대출	40%	50%	60%
비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10% 추가 대출 허용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15% 추가 대출 가능		

- DTI 규제 강화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 및 건전성 악화
  - DTI 규제 강화 후 8개월 동안 가계대출은 자율적용 기간보다 크게 나타남 (자율적용기간 3조원 → 규제강화 후 8개월 3조 6천억원)

2)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가계대출 억제 못하면서 주택거래 위축시키는 DTI 완화 필요, (2012.4).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이외, 특히 신용대출이 증가하였으며 신용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안정성 저해
- 특히 DTI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가계의 상환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DTI 규제는 결국 재고아파트 수요를 위축시켜 기존 재고주택 처분을 통해 신규분양아파트 매입하려는 정상적인 수요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 수요여력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매도대기자들이 추가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상승 → 연체 → 파산 → 경매의 단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가계 및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압박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상승시키면서 전세세입자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연쇄효과 발생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DTI 규제는 금융권 자율로 개정하고, 신용대출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의 관리하거나 DTI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택가격 급등 문제보다 시장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저성장기조 진입, 가계부실 확산 문제를 더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당 비중이 대출목적이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임. 이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거래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주택구입목적에 대한 차별적인 완화 요구

### DTI규제와 가계대출 및 금리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대출금액					금리			
	가계대출	은 행		비은행		은 행			상호저축
		가계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일반대출
DTI 자율 (①) (2010.8~2011.3)	30,851	14,763	14,481	16,088	5,933	5.24	4.78	7.35	13.93
DTI 규제 (②) (2011.4~11)	35,688	19,027	13,551	16,662	6,806	5.53	4.94	7.93	16.49
②-①	4,837	4,264	-930	574	873	0.29	0.16	0.58	2.56

자료 : 한국은행.

### 3) 시장추가요구 주택정책2 : 종부세-재산세 통합 요구

-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은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이 검토되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체에 반대와 시장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한다는 중앙정부 의견으로 지연됨

- 대부분의 종부세는 수도권에 부과되고 교부금 형태로 분배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수도권시장에서 주택보유가구의 피해의식 및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합/완화하는 방안 요구
- 가격하락 및 과세기준에 따라 종부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2007년 약 2조 8천억원 → 2011년 약 1조 1천억원, 60.2% 감소)
- 주택시장의 성숙단계진입, 주택시장과 국내외 경제의 연관성 확대, 시장여건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를 고려하면 주택정책도 일률적인 규제방식 위주의 정책보다는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고 세부시장별로 차별적인 규제/지원 방식의 시스템 필요
  - 시장상황에 따른 규제/지원 정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개입보다 기준의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이 예측 가능한 주택시장시스템 확립이 필요
  - : ex)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세율을 시장 변동성과 연동
  - 현재와 같은 제도화를 통한 직접개입방식은 시장이 정책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며 한번 제도화된 정책의 완화에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대응에 한계 존재

### 3. 충남지역 주택시장 영향

- 최근 충남 주택시장은 지방시장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각 영향요인의 풍선효과와 개발요인에 의해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즉, 각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비교대상인 수도권 시장의 부진으로 인한 상대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제요인과 정책요인의 수도권 vs 비수도권 영향과 개발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요인은 금리인하, 정책요인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 DTI 완화. 개발요인은 세종시 출범 및 분리를 중심으로 검토
- 향후 세종시의 시장안정 정도에 따라 도민의 유출 및 주택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아 충남주택시장의 위축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다만, 충남 주택시장은 지방시장의 구매심리 유지와 타요인보다 개발요인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세종시의 지역수요 흡수가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주변지역 개발에는 긍정적

## 1) 경제요인 : 금리인하 영향은 긍정적

-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영향력이 확대된 경제요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흐름의 반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지적으로 개발요인과 정책요인에 따른 풍선효과로 세부시장의 변동성은 지역별로 차별적일 것으로 보임
  -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라 국내경제 성장률은 년 초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7월 12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함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가계의 이자부담이 1조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경제성장 둔화우려로 인해 기준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인 3%로 인하되었음. 단편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기하방시그널을 주고 있어 시장심리에 부정적임
    - :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상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 금리 연동방식이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각각 체감시기의 차이가 있음
    - : 일반적으로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의 체감은 3개월 후나 가능
  - 특히 향후 금리 인하 압력보다 상승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한국은행 조사<sup>3)</sup>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태도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대책 지속,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대체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금리인하효과는 기존 대출자 위주로 발생하며 신규 매매시장 진입을 위한 가계에는 영향이 미미함
- 다만, 금리인하에 의한 주택매매시장의 영향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클 것으로 추정
  - 주택구매시 금리인하에 의한 월상환액 감소효과는 서울 및 수도권이 크지만 지방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매매비율, 구매력지수(HAI)와 소득대비 낮은 주택가격 비중(PIR)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 금리인하는 주택구매에 있어 상환부담을 완화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구매심리가 유지되면서 거래가 발생하는 지방시장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3)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2012.7.

## 주택가격, 금리인하효과, 구매여력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대전	충남
주택중위가격(만원)	26,697	52,729	36,333	19,311	14,053
전국 전가구 중위월소득(만원)	366				
LTV 기준 대출가능액 한도(만원)	16,018	31,637	21,800	11,587	8,432
DTI 기준 대출가능액 한도(만원)	-	26,850	21,800	11,587	8,432
금리 0.25%p 인하시 월상환금액 감소효과(원)	23,077	45,578	31,406	16,693	12,148
DTI 변화(%p)	0.6	1.2	0.9	0.5	0.3
전세/매매 비율(%)	61.3	52.1	53.9	64.7	65.7
HAI 지수	139.0	69.1	100.8	203.9	263.1
PIR(배)	6.5	10.1	8.6	4.4	3.5

주 1) LTV 60%, DTI 서울 50%, 수도권 60%, 지방 없음.

2) 주택담보대출금리 연5%,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상환.

3) 전국 전가구 중위월소득 수도권 DTI 60% 대출가능금액이 32,200만원이기 때문에 LTV만 적용.

4) HAI지수=(중위가구소득/대출상환가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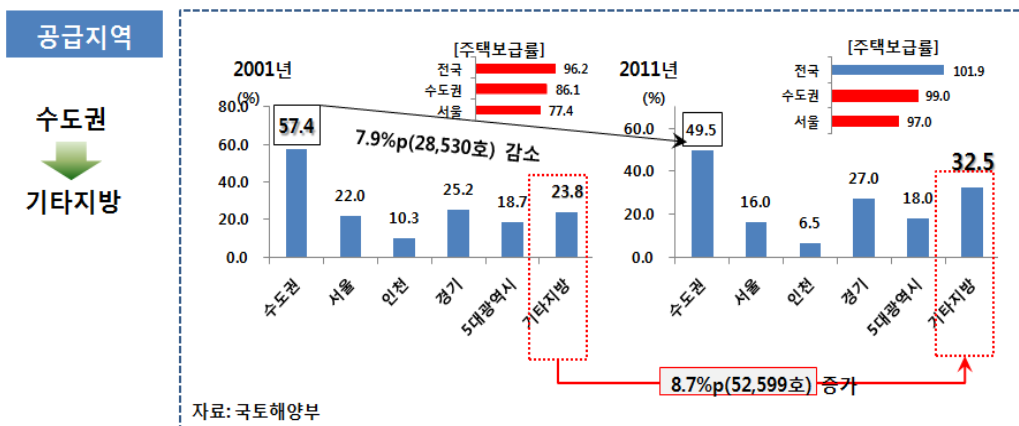
5) PIR(Price to Income Ratio)=연간평균주택가격÷연평균가구소득.

6) 대전, 충남의 HAI 및 PIR은 각각 광역시, 기타지방 값이며 서울의 PIR은 2012년 6월 현재 중위계층값임.

자료 : 2012년 6월 현재, 국민은행.

- 이러한 가계의 주택구매심리는 주택담보대출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12년 1/4분기에는 감소 양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비수도권의 경우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 주택가격 상승 및 공급증가, 거래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인허가 실적은 초과달성기인 2001년과 유사하며 지방 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은 감소하는데 반해 기타지방은 2001년보다 공급물량이 52,599호 증가함

## 2011년 55만호 공급 특성



자료 : 김덕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향후 동향과 대응과제.

-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공급 본격화에 따라 2012년 1/4분기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율이 2011년 1/4분기의 전기대비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월말	3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전국	338,476.4	341,869.2	362,816.3	369,190.3	376,764.8	383,433.8	392,005.4	393,371.8
(증감률)			7.2%	1.8%			8.0%	0.3%
서울	119,830.9	120,654.8	125,434.3	127,503.8	128,223.5	129,182.5	130,452.6	129,888.8
(증감률)			4.7%	1.6%			4.0%	-0.4%
대전	7,711.7	7,857.7	8,793.1	9,045.5	9,446.5	9,948.1	10,733.2	10,698.2
(증감률)			14.0%	2.9%			22.1%	-0.3%
충남	8,467.6	8,639.6	8,969.3	9,017.7	9,110.4	9,180.5	9,710.2	9,911.7
(증감률)			5.9%	<b>0.5%</b>			8.3%	<b>2.1%</b>
수도권	240,773.0	242,918.6	255,893.5	259,747.1	263,283.6	266,204.7	269,353.0	268,771.9
(증감률)			6.3%	1.5%			5.3%	-0.2%
비수도권	97,702.4	98,950.6	106,922.8	109,443.2	113,481.2	117,229.1	122,652.4	124,599.9
(증감률)			9.4%	<b>2.4%</b>			14.7%	<b>1.6%</b>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 2) 정책요인 :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제한적

### ○ 분양가상한제 폐지영향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효과는 시장전체보다 세부 개별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시장의 경우,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건설업체 입장에서 단기적인 분양가 인상으로 미분양 부담을 가져가는 것이 더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
  - : 다만, 상대적으로 전세가격 상승 및 가격조정이 컸던 세부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물량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신규주택거래로 인해 지방시장 수요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지방시장의 구매심리를 반전시킬 정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의 갭이 2000년 초반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146만원/㎡→320만원/㎡) 수도권 시장에 가격진입장벽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충남시장에 긍정적
  - :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면 수도권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충남지역은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지역에서 진입하는 청약경쟁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특히 충남시장의 경우 세종시 근무자의 이주계획에 따라 매매가 아니더라도 임차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종시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 최근 충남지역의 분양가상승률이 전국상승률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가능성은 적음
  - : 충남지역의 주요 개발이슈인 세종시는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임
  - : 세종시 기능 정착을 위해서는 목표년까지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재정적 부담에 따라 민간참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정책시행은 제한적임
  - : 특히 분양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서는 크지 않음

아파트가격, 분양가격,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대전	충남
2000~2002 (3년)	주택가격상승률		55.5%	77.1%	73.4%	61.2%	－
	분양가격		156	246	173	131	100
	분양가격상승률		－1.3%	28.2%	5.6%	3.1%	41.0%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6.9%				
	1순위 청약경쟁률	지역	47.9	65.2	58.8	0.3	0.4
		기타	－	－	－	－	－
2003~2006 (4년)	주택가격상승률		19.7%	34.0%	30.2%	2.1%	5.0%
	분양가격		206	403	258	194	160
	분양가격상승률		60.0%	67.9%	87.7%	71.0%	58.1%
	소비자물가상승률		12.7%				
	1순위 청약경쟁률	지역	20.3	30.1	20.3	2.9	0.12
		기타	58.1	－	58.1	－	－
2007~2010 (4년)	주택가격상승률		8.8%	7.2%	4.7%	14.1%	2.4%
	분양가격		312	576	368	236	218
	분양가격상승률		22.5%	15.9%	15.3%	－12.9%	6.5%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13.5%				
	1순위 청약경쟁률	지역	5.3	6.8	6.1	0.2	0.5
		광역시·지	1.2	0.6	－	－	0.8
기타		5.7	0.7	5.7	－	0.4	
2011~2012.6 (1년6개월)	주택가격상승률		10.4%	－2.0%	－1.0%	18.2%	19.0%
	분양가격		258	536	353	231	216
	분양가격상승률		－13.6%	11.9%	－4.3%	3.6%	11.2%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5.0%				
	1순위 청약경쟁률	지역	3.3	2.7	1.8	1.4	1.4
		광역시·지	0.4	0.7	－	－	0.6
기타		0.8	3.4	2.2	－	6.9	

주 1) 주택가격상승률은 1월1일 대비 12월31일 상승임.

2) 분양가격은 년 기준으로 단위는 만원/㎡이며 기간 동안 상승률.

3) 청약경쟁률은 일반경쟁률로 기간 내 지역별 통계임, 2000~2002년 경쟁률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2년 통계치.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114, 한국은행

### ○ DTI 규제 완화시 영향

- DTI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
  - : DTI 규제가 자율화된 이후 아파트거래 통계는 지역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규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거래는 감소하며 DTI 규제가 아파트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수도권 위주의 재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재규제 기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감소한데 반해 충남지역은 증가함
- 향후 DTI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택가격 수준 및 시장흐름, 구매력 차이 등이 수도권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위축된 구매심리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며 상대적으로 지방의 구매심리는 유지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단위 : 천㎡)

구분	아파트				
	전국	수도권	충남	대전	연기군
2010.8~2011.3	4,312	1,445	251	198	16
2011.4~2011.11	4,162	1,417	262	156	12

주 : 규제 자율화 및 재규제 이후 8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자료 : 온나라, 아파트매매거래 통계

### 3) 개발요인 : 세종시 출범 및 분리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 긍정적

-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로 시작되어 2번의 헌법소원과 지방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민간참여자의 택지비 지불 및 주택공급이 지연되었으나 2006년 건설청 개청과 2009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2010년 지방시장 회복과 최근 세종시 출범 및 시범지구 입주 개시로 주택시장이 재조명 받고 있음
  - 2006년과 2010년 이후 분양가격이 충남시장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
- 다만 초기 개발이슈 및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기대로 주변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분리에 따른 재정문제 및 주택수요 흡수로 인해 주변지자체 및 시장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음
- 선행연구<sup>4)</sup>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만으로 많은 주택수요가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전발전연구원, 임병호, 2011.

고 있기 때문에 자치시 규모의 세종시 출범 및 분리는 지역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음

- 특히 인접 광역시인 대전시의 경우, 세종시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입주가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인구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5월말 현재 세종시 분양아파트 1만 9,408가구 중 대전시민의 청약비중이 14.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대전 거주자의 세종시 첫마을 입주자 수는 대전의 년 인구 증가 수의 40% 해당함
- 이에 따라 대전시도 수도권이주 임차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소형주택의 공급 및 입주 비용 지원 등 세종시와 주택시장에 있어 경합구도로 가고 있음
- 2030년 인구 50만이 목표인 세종시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주변지역 시장에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주변지역의 인프라 확대 및 개발수요로 긍정적
  - 특히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분양가격이 유사수준까지 상승하기 전까지는 주거환경 및 가격상승가능성 등에 따라 인구유출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임
  - : 세종시 이주기관의 이주가 본격화되면 수도권 유출이 단기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부터는 임차수요가 많은 수도권보다 실수요 및 투자수요 모두가 존재하고 부담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대전시민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인접 충남지역의 경우, 세종시와의 인프라 격차 요구에 따른 환경개선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비용으로 인해 개발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주택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hi.re.kr>).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djdi.re.kr>).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di.re.kr>).

#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곽 선 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동시장분석팀장

## 1. 서론

- 최근 고용보험이 자영업자까지 가입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85.1% 까지 상승하는 등 전체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동행정 통계를 통해 노동시장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수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입직자,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이직자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워크넷 통계의 ‘구인인원’은 사업체에서 부족한 인력을, ‘구직자수’는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를 의미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다만, 워크넷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서 전체 노동시장의 상황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구인난을 겪는 영세업체이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많아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 이하 구인, 구직은 워크넷을 통한 구인, 구직을 의미
- 특히 행정통계는 시의성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워크넷 통계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흐름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2. 최근 고용상황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회복세로 전환

- 충남지역 노동시장은 '11년 12월 기준 피보험자수가 406,444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 연간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117,254명으로 전년대비 11.8% 감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임
- '11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63,805개소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여 '09년 소폭 감소한 이후 증가세 유지

주요 노동행정 통계 동향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고 용 보 험	가입 사업장	24,882	26,388	26,632	35,032	45,997	44,744	52,459	58,301	54,041	59,027	63,805
	피보험자수	212,286	224,433	237,016	259,819	284,586	309,438	326,037	340,738	364,280	398,219	406,444
	자격 취득자수	106,479	114,546	115,172	128,760	149,137	151,387	152,311	173,246	194,733	218,470	226,743
실 업 금 여	자격 상실자수	97,046	101,109	105,580	108,155	125,754	131,829	135,114	159,640	174,323	186,626	199,809
	지급금액	25,683	21,955	23,692	36,036	50,028	62,728	76,862	83,837	134,231	110,485	98,662
	지급자수	43,277	35,001	36,032	55,030	72,316	84,463	97,270	103,379	158,289	132,931	117,254
모성보호지원금					1,023	1,335	3,128	5,109	7,629	9,811	12,282	14,044

주 1) 가입사업장, 피보험자 : 12.31. 기준.

2) 자격 취득자수, 자격 상실자수,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자수, 모성보호지원금 : 연간 누계.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10년 충남지역 고용률은 2000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60.4%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1년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여 최근 3년간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 특히 충남 북부권의 제조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효과로 취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섬
- 다만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음

## 경제활동인구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5세이상인구	1,460	1,459	1,457	1,458	1,485	1,517	1,547	1,564	1,588	1,613	1,643
경제활동인구	922	933	929	942	956	991	1,021	996	991	1,003	1,025
취업자	895	908	902	921	931	967	998	973	961	974	1,001
실업자	27	25	27	21	25	24	23	24	29	29	24
비경제활동인구	538	526	528	516	529	526	526	568	597	610	618
경제활동참가율	63.2	63.9	63.7	64.6	64.4	65.3	66.0	63.7	62.4	62.2	62.4
실업률	2.9	2.7	2.9	2.3	2.6	2.4	2.2	2.4	3.0	2.9	2.3
고용률	61.3	62.2	61.9	63.1	62.7	63.8	64.5	62.2	60.5	60.4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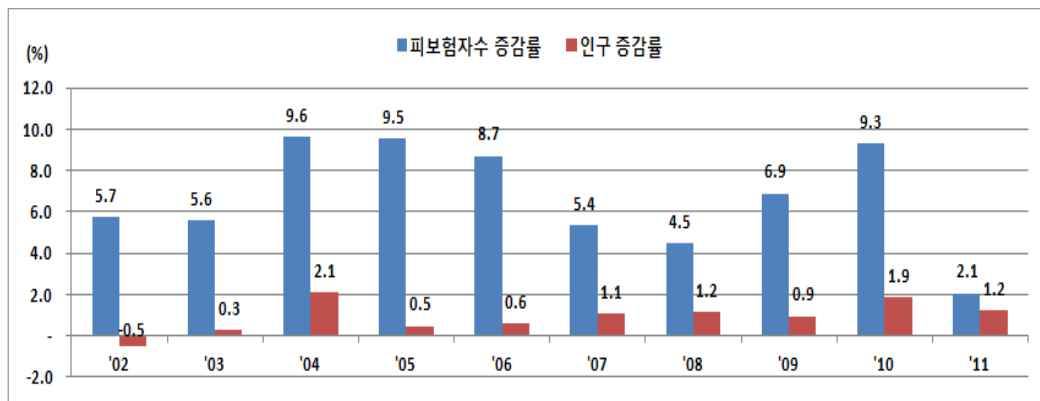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 충남지역 노동시장 특징

## □ 노동력 유입과 고령화

- 충남지역 인구는 2,101천명으로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건립과 북부권의 제조업 활성화로 '07년 이후 연평균 1.6%를 상회하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임
  -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은 5.3%로 16개 시도 중 경기도(7.5%)에 이어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노동가능인구(15세이상인구)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피보험자수는 406,444명으로 '07년 이후 24.7%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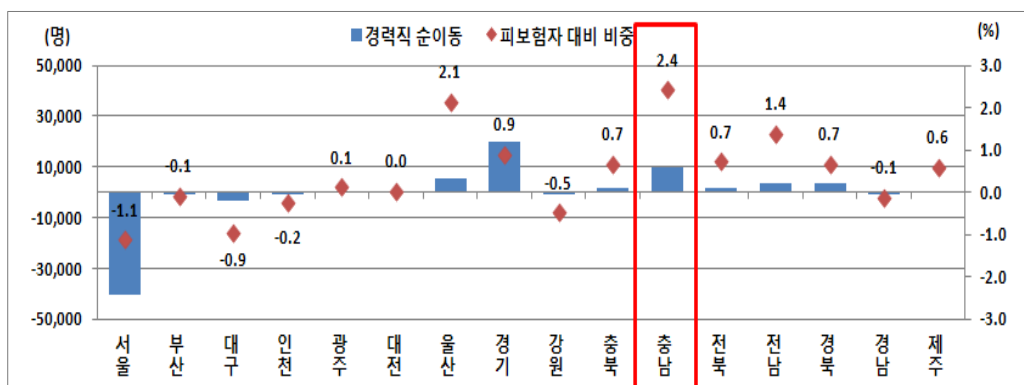
인구 및 피보험자수 증감률 추이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11년 연간 경력직 피보험자 9,893명이 충남지역으로 순유입하여 전체 피보험자 대비 유입 비중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유입 노동력의 증가는 충남지역 경기 활성화의 영향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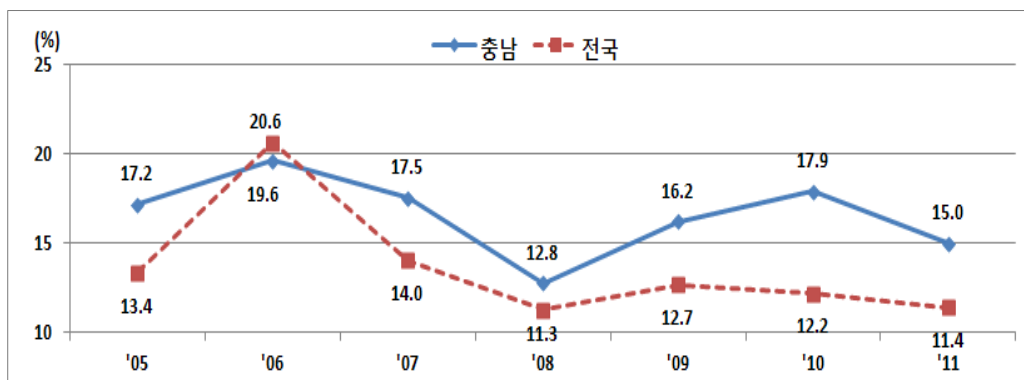
'11년 피보험자 경력직 노동력 순이동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연령별 피보험자수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은 증가 추세이고 그 증가폭도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충남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중<sup>5)</sup>은 15.0%로 '07년 이후 UN기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연평균 3%씩 증가세가 유지되어 2022년경에는 초고령사회<sup>6)</sup>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50세 이상 피보험자 증감률 추이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5) 65세 이상인구 비중에 따른 사회 구분 : 고령화사회(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

6)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 5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증가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

## □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근로자수 증가

- '10년 충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76조 4천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제조업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5.0%의 성장률을 보이며 충남 전체 GRDP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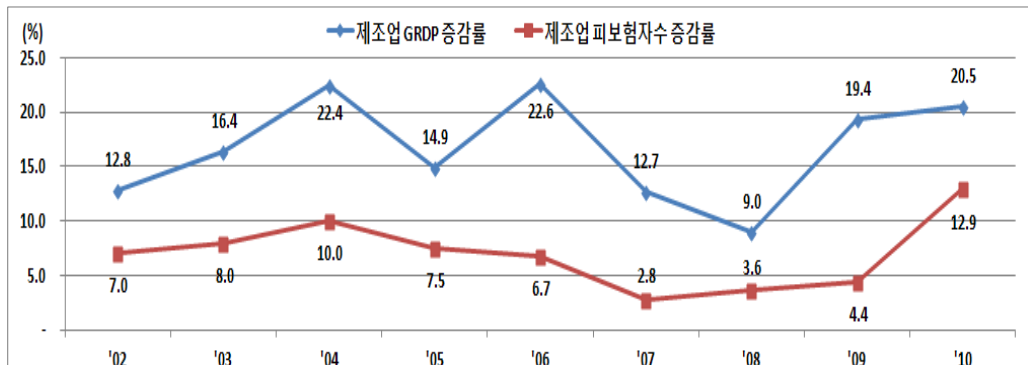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충남	전산업	308,432 (2.8)	348,631 (7.4)	392,511 (13.4)	437,060 (11.7)	474,973 (9.6)	513,613 (12.6)	551,484 (7.6)	579,740 (7.0)	651,338 (12.8)
	제조업	99,628 (1.1)	120,298 (12.8)	132,392 (16.4)	156,468 (22.4)	177,902 (14.9)	198,050 (22.6)	219,405 (12.7)	235,868 (9.0)	295,890 (19.4)
전국	전산업	6,501,909 (3.9)	7,234,860 (8.3)	7,722,213 (3.6)	8,294,684 (3.5)	8,693,046 (4.1)	9,129,256 (5.1)	9,830,303 (5.6)	10,285,005 (2.7)	10,666,646 (0.8)
	제조업	1,523,114 (2.1)	1,658,771 (7.8)	1,732,996 (4.3)	2,037,876 (9.1)	2,138,586 (5.9)	2,221,447 (8.3)	2,401,244 (7.3)	2,554,189 (3.4)	3,175,662 (-0.5)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당해년 가격).

( ) : 전년대비 증감률(2005년 기준).

- 제조업 피보험자수도 2001년 이후 연평균 7.0% 증가하였으나, 고용효과는 GRDP 성장세(1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GRDP 및 피보험자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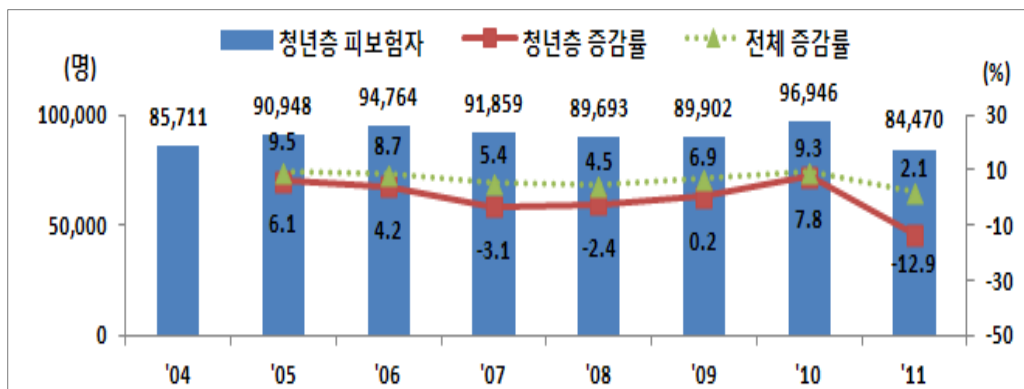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 청년층 고용사정 부진

- 충남지역 청년층(29세 이하) 피보험자는 전체 피보험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꾸준히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층 구직자는 늘어나는 추세
- 청년층 증감률은 전체 피보험자 증감폭보다 낮은 수준이고, 특히 '11년에는 전년대비 12.9% 감소하여 청년층 고용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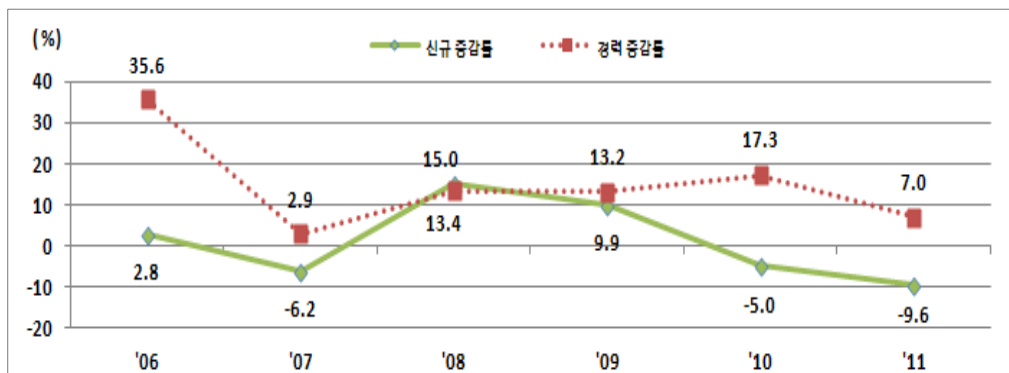
청년층(29세 이하) 피보험자 추이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또한 피보험자 취득자수를 보면 경력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신규 취득자는 줄어 들고 있는 추세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이는 고학력 구직자 증가로 인해 일자리 기대수준이 높아졌고, 사무관련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많은 반면, 사업체에서는 생산관련직 일자리가 많아 직종별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피보험자 신규, 경력 취득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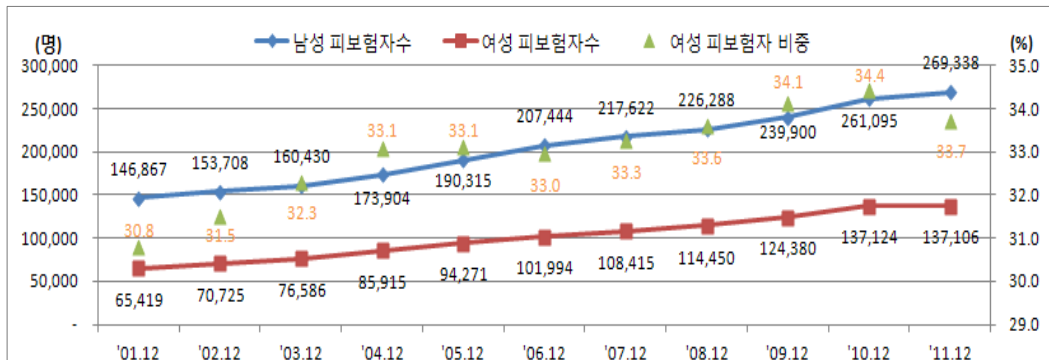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충남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피보험자수는 '11년 12월말 기준 137,106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0.01%) 하였으나,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전체 피보험자 중 여성 피보험자 비중은 33.7%로 2001년 대비 2.9%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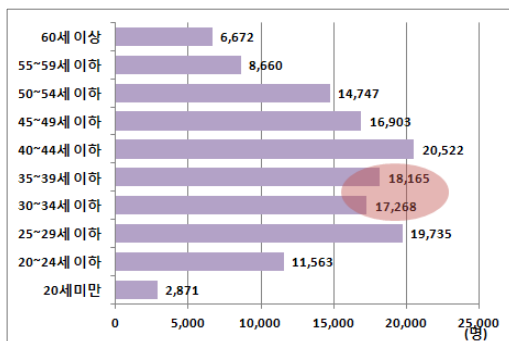
성별 피보험자수 및 여성 피보험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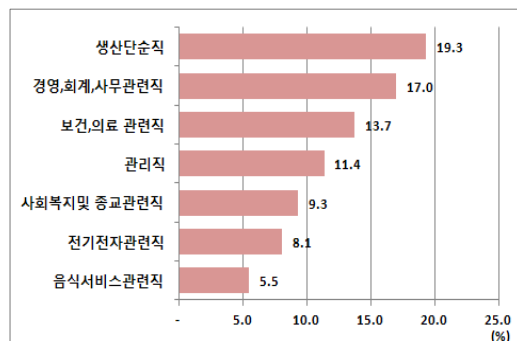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다만 최근 충남지역 고용성장이 남성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 피보험자 비중(33.7%)이 전국평균(38.5%) 보다 낮은 수준이고, 특히 16개 시도 중 울산, 경남에 이어 낮음
  -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11년 12월말 연령별 여성 피보험자수 및 40세 이상 여성 직종별 피보험자 비중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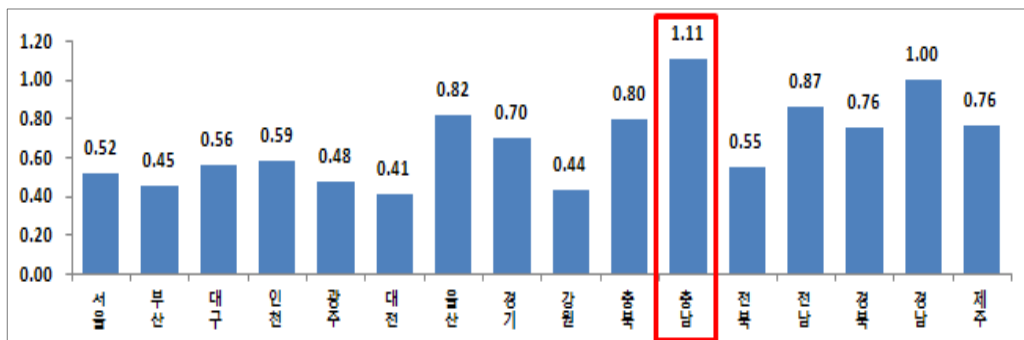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이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함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 '11년 충남지역의 구인배율<sup>7)</sup>은 1.11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년 사이 크게 높아짐
- 이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수를 의미하므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11년 시도별 구인배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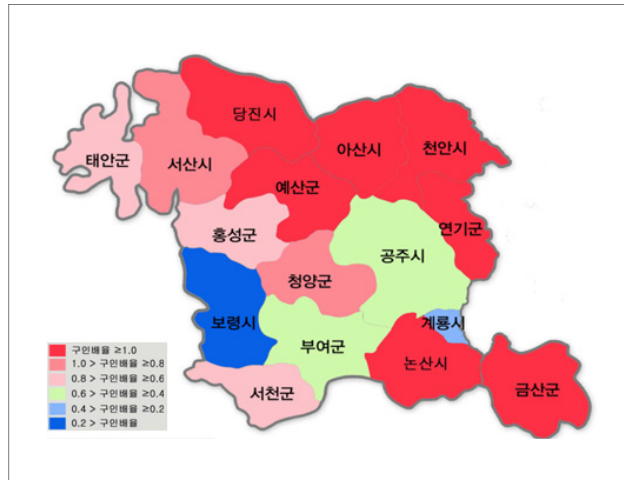
※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구인배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음
  - 제조업 중심인 천안, 아산, 당진과 농업중심인 금산, 논산 등은 구인배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계룡, 보령 등은 구인배율이 낮게 나타남
- 따라서 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구인배율이 높은 시군의 일자리에 인근의 구인배율이 낮은 시군의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간 인력 mismatch 해소 노력이 필요

7) 구인배율 : 워크넷 구인과 구직자의 비율(구인인원/구직자수).

구인배율이 1에 가까우면 노동수급이 균형 상태에 있으며, 1보다 작으면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1보다 크면 구인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 노동수급 mismatch가 나타난다고 해석 가능.

'11년 시군별 구인배율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 4. 결론

- 노동행정 통계를 통해 충남지역 노동시장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고용여건이 최근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구인배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일자리 여건 또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이러한 회복세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노동력 증가와 북부권 제조업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체 노동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체 노동시장의 고령화도 지속
  -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청년층,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할 것임



## Chungnam Economic Trends

# 경제동향



##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5월)			소 비(5월)	물 가(6월)		대외거래(6월)		고 용(6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52.3	147.2	159.6	129.9	105.8	106.1	47,250	42,341	25,939	25,117	3.2
서울	84.7	86.2	181.6	130.3	105.5	106.2	4,922	9,821	5,330	5,105	4.2
부산	131.1	126.7	180.3	131.8	107.0	106.8	1,180	1,059	1,717	1,654	3.7
대구	136.1	132.5	160.4	108.1	107.2	106.7	564	290	1,259	1,221	3.0
인천	116.1	115.3	140.6	123.4	104.8	105.2	2,430	3,183	1,500	1,432	4.6
광주	159.8	155.3	103.5	135.3	105.2	105.6	1,173	407	709	688	2.9
대전	115.7	119.3	88.1	119.7	106.1	106.3	335	213	761	734	3.6
울산	124.1	132.8	134.5	120.1	106.2	106.1	8,682	7,207	565	548	2.9
경기	186.3	162.0	217.7	129.7	105.4	105.9	7,548	8,023	6,210	6,009	3.2
강원	138.7	138.0	167.8	161.5	106.4	106.4	177	117	735	721	2.0
충북	169.5	179.5	205.4	117.7	106.6	106.4	987	578	801	784	2.2
<b>충남</b>	<b>224.4</b>	<b>213.5</b>	<b>218.3</b>	<b>177.0</b>	<b>107.0</b>	<b>106.7</b>	<b>5,005</b>	<b>2,764</b>	<b>1,119</b>	<b>1,090</b>	<b>2.6</b>
전북	138.0	138.7	140.7	135.1	106.6	106.4	1,174	381	891	875	1.7
전남	138.8	132.8	138.6	153.3	106.2	106.1	3,582	4,144	944	934	1.1
경북	107.7	107.5	146.5	140.4	107.0	106.4	4,193	1,723	1,455	1,413	2.9
경남	154.6	156.2	135.7	135.9	105.6	106.0	5,291	2,400	1,642	1,613	1.7
제주	141.6	128.7	100.4	162.2	104.5	105.0	6	31	300	295	1.5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충남 경제 동향(요약)



- 5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모두 하락
- 5월 충남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상승, 기업경기 지수는 장기간 기준치보다 낮아 기업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활동은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고용사정 개선추세가 다소 주춤. 물가는 상승세가 악화되었으며, 대외거래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경기

- 5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9% 상승한 145.1을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대비 0.5%p 상승
- 7월 BSI는 제조업 상승, 비제조업 하락(제조업 84, 비제조업 70)
-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경영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시장경기의 체감지수는 모두 하락한 반면, 전망지수는 대부분 상승하여 시장경기가 여름 성수기로 인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조사됨

### 산업활동

- 5월 광공업 생산지수 -6.1%(230.0), 재고지수 -14.6%(217.5) 전월대비 감소, 출하지수 +0.6%(217.1) 전월대비 증가
- 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등의 감소가 산업생산 감소에 기인

### 소비 및 물가

- 5월 대형소매점(+6.4%), 대형마트(+6.5%) 판매액 전월대비 각각 증가
- 6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86,775대로 전월대비 0.3%(2,427대) 증가
- 6월 소비자물가지수 106.7(+0.1%) 전월대비 상승, 생활물가지수 107.0(-0.2%) 하락



## 수출입

- 6월 수출은 전월대비 1.2% 감소(50억5백만달러, 반도체 -0.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0% 등)
- 수입은 전월대비 11.3% 감소(27억64백만달러, 원유 -19.2%, 석유제품 -13.7% 등)
- 6월 무역수지는 22억41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2억91백만달러 증가)

## 고용

- 6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0.5%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전월과 동일(65.3%)
- 취업자 전월대비 0.3% 감소한 1,090천명(농림어업 186천명, 광공업 205천명, 건설업 71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02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29천명 등)
- 6월 실업률 2.6%로 전월대비 0.8%p 증가, 실업자 29천명으로 전월대비 46.0% 증가

## 금융

- 5월 금융기관 수신 증가세 전환, 여신 증가폭 축소
- 5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5,146억원, 총 여신증감액 +2,645원
- 5월 어음부도율 0.57%로 전월보다 0.45%p 상승
- 5월 부도금액 70억7천만원으로 전월보다 42억6천만원 증가

## 건설 및 부동산

- 6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14.7%(949,266㎡), 착공면적 48.3%(882,658㎡) 각각 감소
- 6월 토지거래는 12,503건으로 전월대비 8.3% 하락, 면적은 전월대비 25.9% 증가
- 6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108.6으로 전월대비 0.6%, 전세가격지수 111.5로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서북구 및 아산)

#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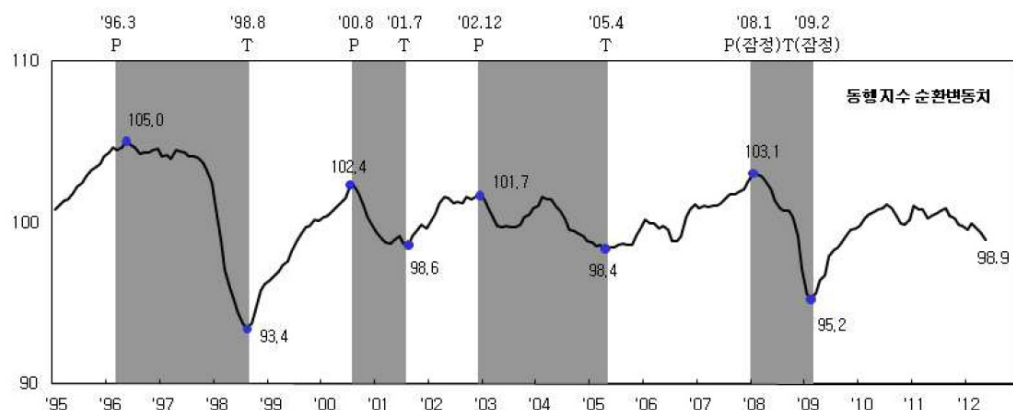
## [전국 경기동향]

- 5월 동행종합지수는 비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 제외)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p 하락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05=100)

구분	'11.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 동행종합지수	141.1	141.1	141.7	141.9	143.1	143.3	143.6	143.5
· 전월비(%)	0.3	0.0	0.4	0.1	0.8	0.1	0.2	-0.1
○ 순환변동치	100.3	99.8	99.8	99.6	100.0	99.6	99.4	98.9
· 전월차(p)	-0.1	-0.5	0.0	-0.2	0.4	-0.4	-0.2	-0.5



- 5월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p 하락

선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구분	'11.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 선행종합지수	136.8	137.1	137.7	138.7	140.1	140.6	141.2	141.3
· 전월비(%)	0.1	0.2	0.4	0.7	1.0	0.4	0.4	0.1
○ 순환변동치	99.2	99.0	99.0	99.2	99.9	99.8	99.8	99.4
· 전월차(p)	-0.2	-0.2	0.0	0.2	0.7	-0.1	0.0	-0.4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5p 상승한 100.2를 나타냄
  - 2012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1.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 동행종합지수	141.0	141.6	142.0	142.5	143.1	143.0	143.8	145.1
· 전월비(%)	0.5	0.4	0.3	0.4	0.4	-0.1	0.6	0.9
○ 순환 변동치	100.4	100.4	100.2	100.1	100.1	99.6	99.7	100.2
· 전월차(p)	0.1	0.0	-0.2	0.0	0.0	-0.6	0.2	0.5

주 : p는 잠정치임.

- 5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산업생산 둔화가 지속된 반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대형 소매점판매액은 상승세로 전환하여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됨
  - 비농가취업자수(+0.9%), 대형소매점판매지수(+0.2%), 전력사용량(+1.8%), 수출액(+4.7%), 수입액(+2.5%) 증가
  - 산업생산지수(-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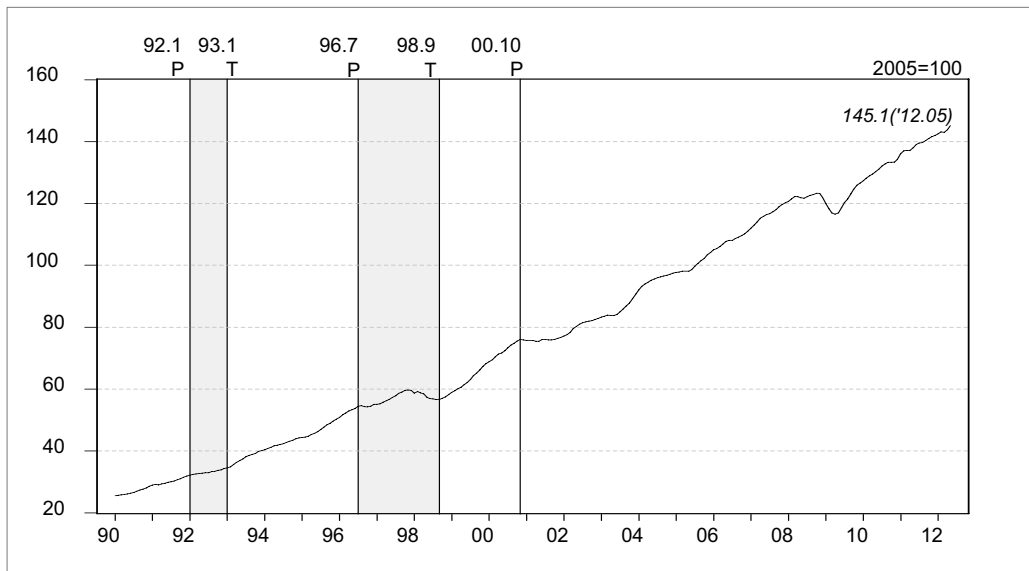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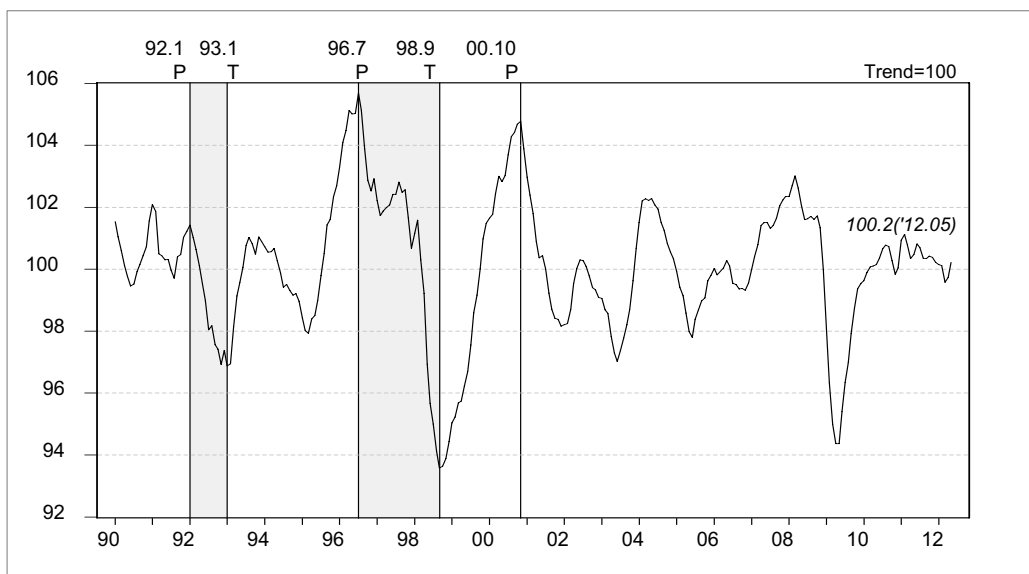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1.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비농가취업자수	0.4	1.1	0.7	0.5	-0.1	0.4	0.9	0.9
산업생산지수	0.8	-0.4	-0.8	0.2	1.1	0.0	0.0	-0.5
대형소매점판매지수	1.0	0.7	2.3	-4.6	-4.5	-8.2	-1.9	0.2
전력사용량	0.4	0.0	-0.1	1.3	1.1	1.9	1.7	1.8
수출액(실질)	1.1	0.5	1.2	5.9	7.0	5.2	3.5	4.7
수입액(실질)	1.6	0.2	-0.6	0.3	1.4	-2.6	0.4	2.5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 [기업경기전망(BSI)]

- 7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전월과 보합
  - 제조업 업황BSI는 84로 전월(84)과 동일, 자금사정전망BSI 95로 전월(95)과 동일
- 7월 대전·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와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76)보다 6p, 자금사정전망BSI는 90으로 전월(94)보다 4p 각각 하락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기전망이 전월대비 보합 및 하락하여 기업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계속되는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 경쟁심화 등이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7	90	85	86	88	84	84(84)	0(-2)
매출	92	97	105	103	102	99	98	-1
생산	97	106	109	105	106	100	99	-1
신규수주	97	102	106	101	102	96	97	+1
채산성	90	92	92	91	93	90	89	-1
제품재고	106	103	103	103	105	106	106	0
인력사정	93	92	89	89	92	92	92	0
자금사정	96	95	93	95	95	95	95(88)	0(0)
외부자금수요	120	116	110	111	107	111	109	-2
자금조달사정	94	95	95	96	100	99	99	0

주 :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77	71	73	76	80	76	70(77)	-6(-6)
매출	89	86	87	83	91	86	79(90)	-7(-4)
채산성	86	81	90	88	89	84	83(88)	-1(-2)
인력사정	92	92	90	86	84	81	87(89)	+6(0)
자금사정	79	71	81	88	92	94	90(88)	-4(-1)
외부자금수요	122	122	117	112	112	108	109	+1
자금조달사정	83	81	89	96	95	95	91	-4

주 : (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시장경기 동향]

- 6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모든 체감지수가 전월보다 하락
  - 하락지수 : 업황(-32.5p), 매출(-22.4p), 마진(-18.3p), 매입원가(-7.5p), 상품판매가격(-4.9p), 자금사정(-4.9p), 구매고객수(-9.7p)
  - 소비심리 위축, 날씨 및 계절적 요인, 대형마트, SSM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체감지수가 전월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7월 시장경기 전망은 업황, 매출, 자금사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가 상승하였음
  - 상승지수 : 마진(+4.0p), 매입원가(+3.4p), 상품판매가격(+5.4p), 구매고객수(+7.3p)
  - 하락지수 : 업황(-1.2p), 매출(-8.0p), 자금사정(-5.8p)
  - 7월 성수기를 시장경기 전망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날씨, 소비심리 호전 등이 시장경기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전망)
업황	전국	50.5	48.4	41.7	62.8	64.8	60.4	65.1
	충남	54.2	43.3	47.0	67.4	79.6	47.1	72.0
매출	전국	53.3	52.4	42.5	61.9	68.5	62.2	65.5
	충남	62.9	43.8	48.7	64.3	76.4	54.0	68.1
마진	전국	51.5	47.9	43.3	58.8	64.7	58.5	68.4
	충남	65.3	45.6	55.2	65.3	72.5	54.2	76.9
매입 원가	전국	129.1	131.0	141.2	129.7	128.8	121.3	111.4
	충남	130.4	125.8	145.3	135.3	125.1	117.6	111.6
상품 판매가격	전국	96.2	98.6	96.2	96.1	98.2	94.5	94.0
	충남	97.3	98.9	101.6	98.6	103.0	98.1	100.6
자금 사정	전국	54.0	46.5	42.2	56.2	61.9	57.2	65.4
	충남	54.4	46.0	49.1	56.7	68.5	63.6	69.2
구매 고객수	전국	55.2	47.7	40.6	58.3	64.1	59.2	65.1
	충남	58.4	37.1	46.3	56.4	67.8	58.1	77.7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 2. 산업활동

### [광공업 산업활동]

- 5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0%, 전월대비 6.1% 각각 감소
  - 화학제품, 제1차금속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 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재고는 그 증가폭이 축소됨
  - 출하는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
  - 재고는 제1차금속, 섬유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은 감소

####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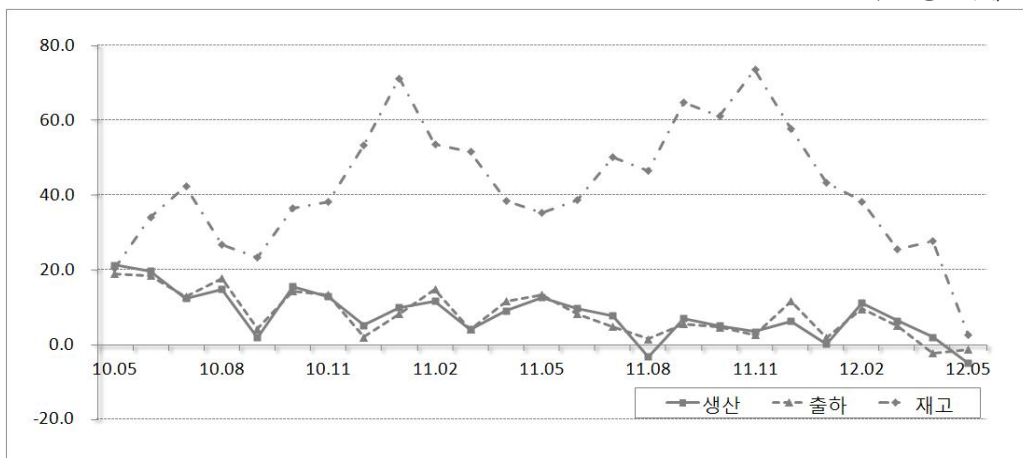
(2005=100.0,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51.5	148.4	155.2	149.6	155.5	2.6	1.1	
	출 하	144.0	141.7	148.5	142.8	148.7	3.3	2.2	
	재 고	139.4	164.0	159.0	158.6	160.2	14.9	-0.7	
충남	생 산	242.2	226.1	246.0	235.5	230.0	-5.0	-6.1	
	출 하	220.2	206.2	222.9	209.3	217.1	-1.4	0.6	
	재 고	212.1	289.7	268.7	258.7	217.5	2.5	-14.6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

#### 충남의 광공업 산업 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 3. 소비 · 물가

#### [소비]

- 5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9%, 전월대비 6.4% 각각 증가
  -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27,170백만원, 지수는 177.0을 나타냄
-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7%, 전월대비 6.5% 각각 증가
  -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운동·오락, 신발 의복 등의 준내구재의 큰 폭 상승으로 대형마트판매액 증가세 지속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0.7) : 통신기기(+12.6), 가구(+4.7), 가전제품(+0.7)
- 준내구재(+22.5) : 운동·오락(+50.5), 신발(+33.9), 의복(+20.3)
- 비내구재(+2.1) : 화장품(+17.9), 음식료품(+0.4)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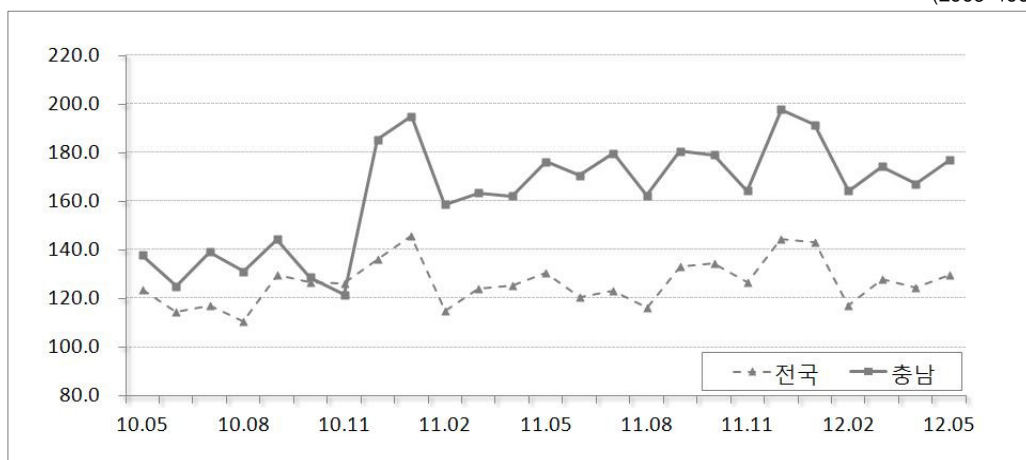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5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5,368,929	4,976,390	5,457,274	5,296,651	5,565,717	3.7	5.1	
충 남								
대형소매점	121,238	116,618	124,630	119,552	127,170	4.9	6.4	
대형마트	78,018	76,802	80,257	75,968	80,906	3.7	6.5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 [자동차 등록]

- 6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6%,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6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86,775대로 전년동월보다 30,788대, 전월보다 2,427대 증가
  - 차종별로는 승합차(-0.0%)와 특수화물(-0.1%)은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승용차(+0.3%), 화물(+0.2%)은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1.6%)를 제외한 승용차(+4.7%), 화물(+1.4%), 특수화물(+1.4%)의 전월대비 등록대수 증가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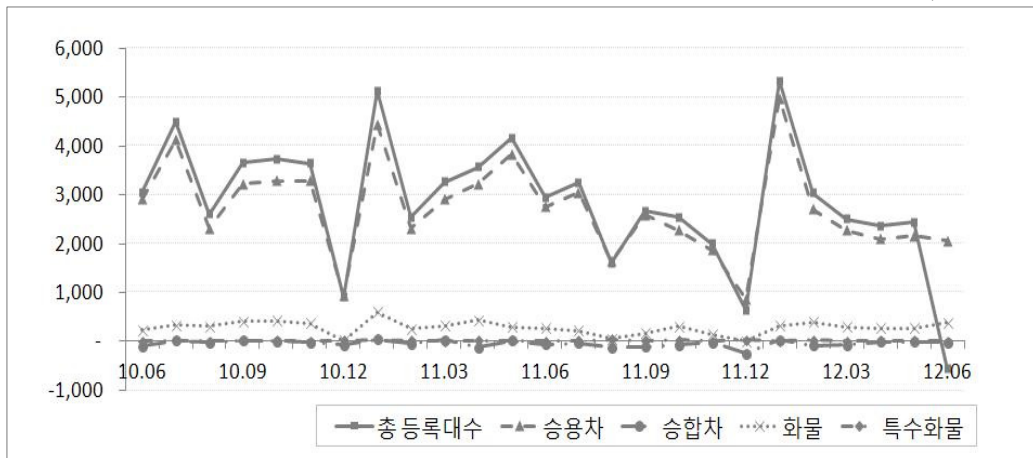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1년	2012년				증 감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55,987	879,550	881,916	884,348	886,775	30,788	2,427
차 종 별	승용	607,137	629,387	631,481	633,644	635,705	28,568	2,061
	승합	50,243	49,500	49,485	49,474	49,457	-786	-17
	화물	195,870	197,761	198,031	198,298	198,684	2,814	386
	특수화물	2,737	2,902	2,919	2,932	2,929	192	-3
용 도 별	자가용	816,040	837,132	839,410	841,774	844,180	28,140	2,406
	관용	4,003	4,052	4,106	4,144	4,170	167	26
	영업용	35,944	38,366	38,400	38,430	38,425	2,481	-5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 [물가]

- 6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로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0.1% 각각 하락
  - 농축수산물(+5.5%), 공업제품(+3.3%), 서비스(+1.7%)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대부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전월대비 0.2%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110.4로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 전월대비 5.2% 하락
  - 신선어개(+2.6%), 신선채소(+22.1%), 신선과실(+12.9%)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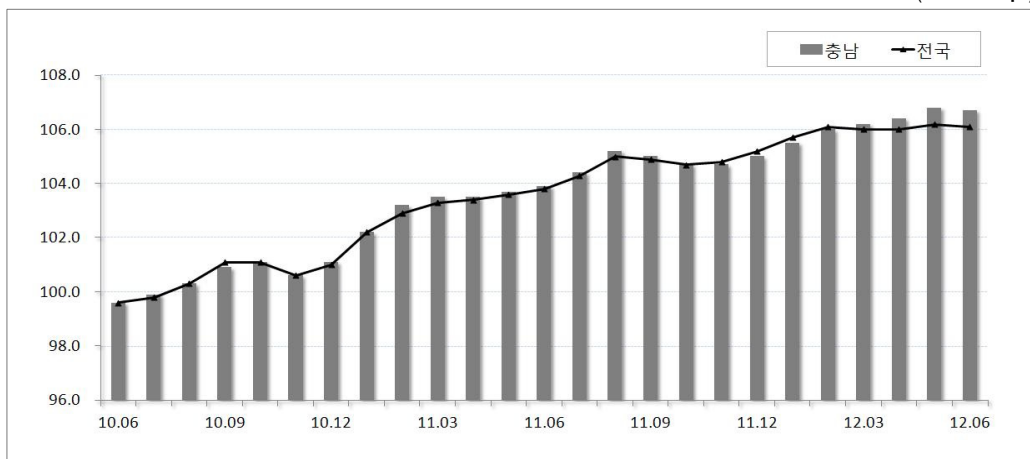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3.8	106.0	106.0	106.2	106.1	2.2	-0.1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3.9	106.2	106.4	106.8	106.7	-2.7	-0.1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품	105.6	109.3	109.2	109.8	109.5	3.7	-0.3
	서 비 스	102.3	103.2	103.7	103.9	104.0	1.7	0.1
생활물가지수		103.9	106.7	106.9	107.2	107.0	2.7	-0.2
신선식품지수		98.0	115.1	113.5	116.5	110.4	11.4	-5.2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 4. 수출입

### [수출입]

- 6월 충남의 수출은 50억5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 1.2% 감소
  -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감소세 지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감소세 전환
  - 계속되는 선진국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세계 소비자들의 TV 수요 부진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 및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다소 축소되고 있음
- 6월 충남의 수입은 27억64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7%, 전월대비 11.3% 각각 감소
  -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 석탄, 원동기 및 펌프 등의 큰 폭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였음
  - 6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2억41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월에 비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커 흑자가 전월대비 다소 증가

####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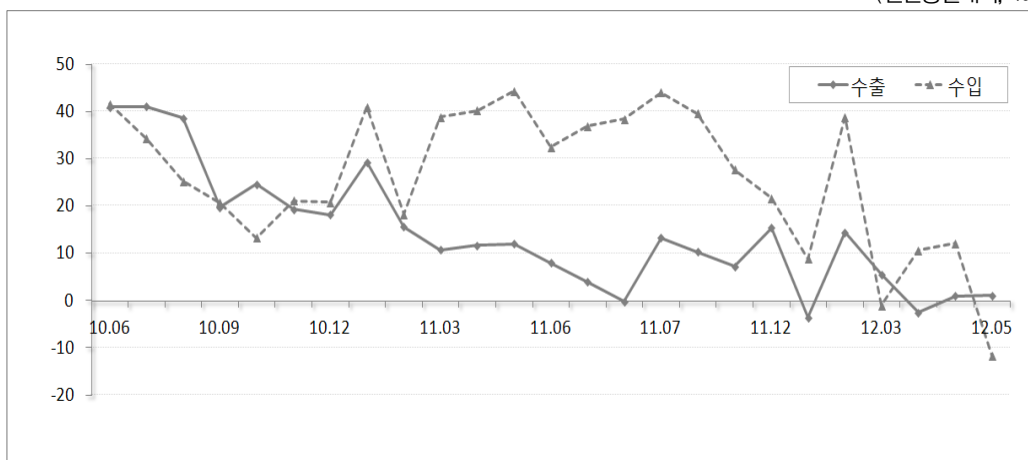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6월	3월	4월 <sup>P</sup>	5월 <sup>P</sup>	6월 <sup>P</su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6,737	47,335	46,123	46,960	47,250	1.1	0.6
	수입	44,825	45,024	44,030	44,743	42,341	-5.5	-5.4
	무역수지	1,912	2,311	2,093	2,217	4,909	-	-
충남	수출	4,957	5,140	4,741	5,067	5,005	1.0	-1.2
	수입	3,131	2,804	2,971	3,117	2,764	-11.7	-11.3
	무역수지	1,826	2,336	1,770	1,950	2,241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 6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sup>1)</sup>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5,005	1.0	-1.2	100.0
1	반도체	1,332	-12.2	-0.2	26.6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01	-15.1	-5.0	18.0
3	석유제품	444	138.6	19.4	8.9
4	전자응용기기	395	2.2	-9.0	7.9
5	자동차	224	10.0	-6.7	4.5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 6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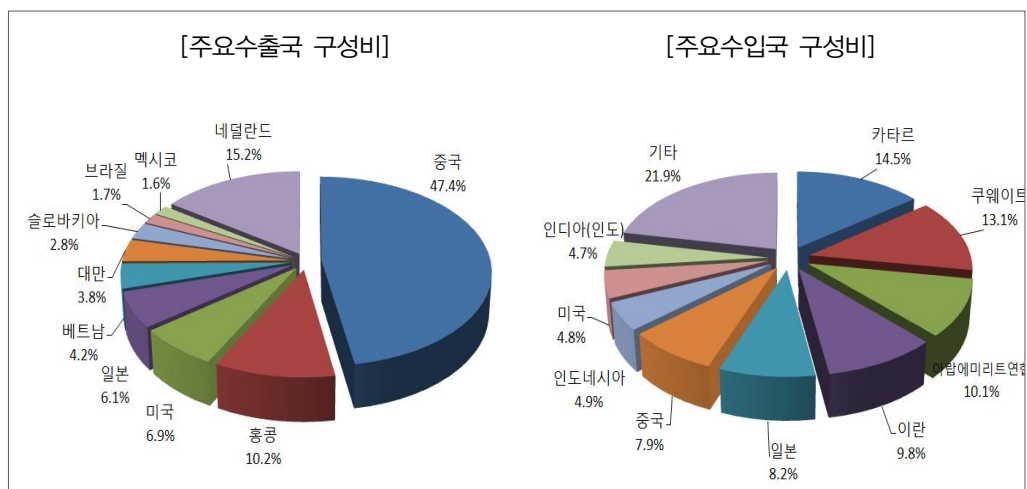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sup>1)</sup>	수입액	증 감 율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764	-11.7	-11.3	100.0
1	원유	1,240	-10.0	-19.2	44.9
2	석유제품	364	23.7	-13.7	13.2
3	석탄	204	-40.0	-10.9	7.4
4	원동기 및 펌프	87	-36.3	569.2	3.1
5	합금철선철 및 고철	63	-38.4	-3.1	2.3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 6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 5. 고 용

### [경제활동인구]

- 6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714천명으로 전년동월(1,640천명)보다 75천명(+4.6%)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119천명으로 전년동월(1,076천명)보다 43천명(+4.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량)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592	25,210	25,653	25,939	25,939	1.4	0.0	
	충남	1,076	1,041	1,097	1,113	1,119	4.0	0.5	
	남자	629	622	648	654	657	4.5	0.4	
	여자	447	419	448	459	463	3.4	0.8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62.4	60.9	61.9	62.5	62.4	0.0	-0.1	
	충남	65.6	61.7	64.6	65.3	65.3	-0.3	0.0	
	남자	77.6	74.2	76.9	77.1	76.9	-0.7	-0.2	
	여자	53.9	49.3	52.5	53.6	53.8	-0.1	0.2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 [취업자]

- 6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전월대비 0.3% 감소
  -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 162천명, 고령층 취업자 313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1천명(+7.2%) 증가, 고령층취업자는 17천명(+5.7%)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제외한 부문은 증가세 지속
  - 광공업 205천명(+2.7%), 건설업 71천명(+5.7%), 도소매·음식숙박업 202천명(+12.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29천명(+6.9%)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186천명(-9.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98천명(-1.3%)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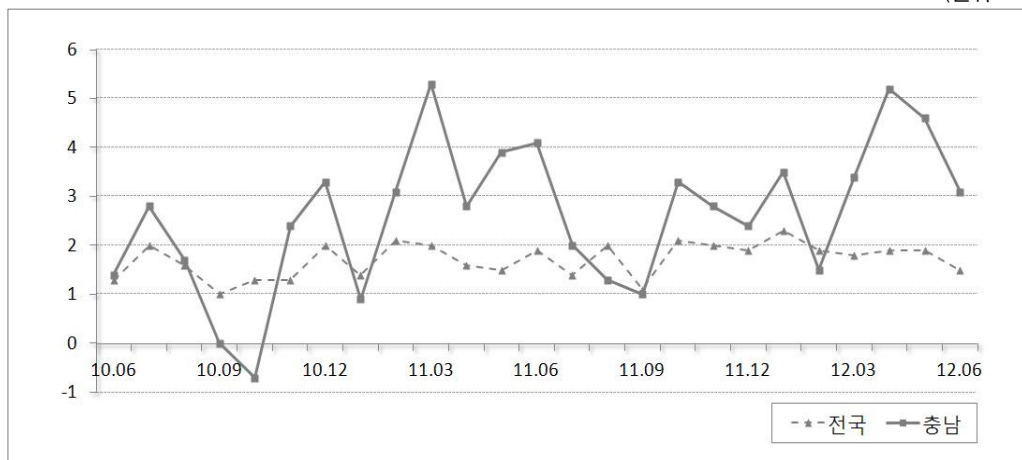
## 연령별 · 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 국	24,752	24,265	24,758	25,133	25,117	1.5	-0.1
	충 남	1,057	1,015	1,069	1,094	1,090	3.1	-0.3
청년층 (15~29세)	전 국	3,897	3,818	3,857	3,911	3,868	-0.8	-1.1
	충 남	151	155	159	150	162	7.2	-0.4
고령층 (55세이상)	전 국	5,228	5,075	5,399	5,617	5,607	7.2	-0.2
	충 남	296	264	301	315	313	5.7	-0.6
	55~59세	91	95	100	99	98	7.9	-0.5
	60세이상	205	169	201	216	215	5.1	-0.3
산업별	농림어업	205	136	176	188	186	-9.1	-0.8
	광공업	200	205	203	209	205	2.7	-1.9
	건설업	67	67	70	70	71	5.1	0.9
	도소매 음식숙박업	179	191	192	199	202	12.7	1.7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308	319	332	330	329	6.9	-0.1
	전기 · 운수 · 통신금융업	99	98	96	99	98	-1.3	-1.2

##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실업률]

- 6월 충남의 실업자는 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9%p, 전월대비 0.8%p 각각 증가

## 6. 금융

###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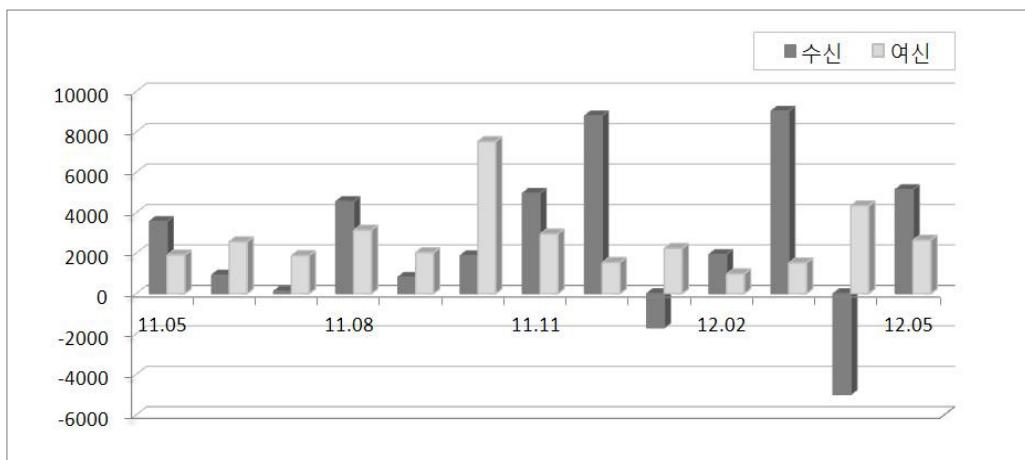
- 5월중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7조 5,074억원, 비은행기관 30조 1,932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7조 7,006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지자체 교부금 및 법인자금 등이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유입되면서 예금은행 수신 증가세로 전환 [4월 -5,904억원 → 5월 +3,259억원]
  - 비은행기관 :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반사효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의 증가세 지속으로 비은행기관 수신 증가세 지속 [4월 +1,314억원 → 5월 +1,887억원]
  - 총 수신증감액 : 4월 -2,645억원 → 5월 +5,146억원

### [여신]

- 5월중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5조 2,995억원, 비은행기관 16조 6,482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1조 9,477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세종시, 천안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관련 대출 증가와 계절요인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로 예금은행 여신 증가세 지속 [4월 +3,230억원 → 5월 +2,062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의 전월 영농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소폭 증가세 지속으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세 축소 [4월 +1,114억원 → 5월 +593억원]
  - 총 여신증감액 : 4월 +4,344억원 → 5월 +2,645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어음부도]

- 5월 충남의 부도율은 0.57%로 전월대비 0.37%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0.27%, 공주 0.29%, 당진 5.08%, 아산 0.19%, 연기 0.16%, 홍성 0.00%의 부도율을 나타냄

###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연중	5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남	0.31	0.12	0.15	0.13	0.20	0.57	0.37	0.45
천안	0.47	0.21	0.23	0.34	0.20	0.27	0.07	0.06
공주	0.57	0.11	0.00	0.00	0.14	0.29	0.15	0.18
당진	-	-	0.01	0.01	1.15	5.08	3.93	-
아산	-	-	0.45	0.04	0.06	0.19	0.13	-
연기	-	-	0.17	0.07	0.25	0.16	-0.09	-
홍성	0.26	0.04	0.00	0.05	0.00	0.00	0.00	-0.04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5월중 부도금액은 70억 7천만원으로 전월보다 42억6천만원 증가
  - 제조업 : 4월 18억 5천만원 → 5월 61억 1천만원
  - 건설업 : 4월 8억 1천만원 → 5월 8억 3천만원
  - 서비스업 : 4월 5천만원 → 5월 1억원
- 5월중 부도업체수는 3개로 전월(0개)보다 증가

###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5월	2월	3월	4월	5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7.4	8.6	4.8	18.5	61.1	53.7	42.6
	건설업	5.0	1.5	11.1	8.1	8.3	3.3	0.2
	서비스업	1.6	5.5	0.4	0.5	1.0	-0.6	0.5
	기타	0.2	5.6	1.1	1.0	0.3	0.1	-0.7
	합계	14.2	21.2	17.4	28.1	70.7	56.5	42.6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1	0	0	2	2	2
	건설업	0	0	1	0	0	0	0
	서비스업	0	2	1	0	1	1	1
	기타	0	0	0	0	0	0	0
	합계	0	3	2	0	3	3	3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신설법인수]

- 5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180개로 전월(206개)보다 26개 감소



## 7. 건설 · 부동산

### [건축허가 및 착공]

- 6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949,266㎡로 전년동월대비 41.7%, 전월대비 14.7% 각각 증가
  - 6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41.2%), 상업용(15.8%), 공업용(20.8%)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sup>2</su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669,908	1,165,607	816,592	827,663	949,266	41.7	14.7	
주거용	164,762	623,111	413,892	258,003	391,416	137.6	51.7	
상업용	112,341	166,862	135,778	184,696	149,780	33.3	-18.9	
농수산업용	72,901	49,569	66,201	54,386	76,579	5.0	40.8	
공업용	176,240	121,438	106,920	132,482	197,692	12.2	49.2	
기 타	143,664	204,627	93,800	198,096	133,799	-6.9	-32.5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6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882,658㎡로 전년동월대비 34.6%, 전월대비 48.3% 각각 증가
  - 6월 착공면적 구성비 : 주거용(47.2%), 상업용(17.0%), 공업용(11.0%)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sup>2</su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655,836	824,197	1,083,638	595,332	882,658	34.6	48.3	
주거용	141,908	336,579	565,524	278,807	416,861	193.8	49.5	
상업용	116,544	191,815	100,108	111,039	149,982	28.7	35.1	
농수산업용	52,338	55,686	71,036	66,796	67,664	29.3	1.3	
공업용	148,130	105,952	86,369	93,329	96,802	-34.7	3.7	
기 타	196,916	134,165	260,601	45,361	151,349	-23.1	2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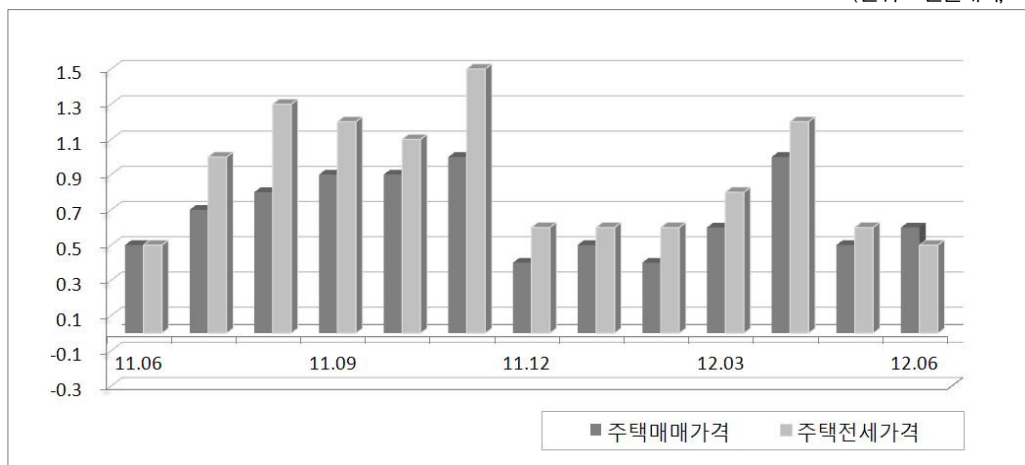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6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년동월대비 8.6%,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천안 서북구에서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등으로 상승, 아산지역 산업단지의 직장인 유입으로 전반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 지속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0.9%) 및 아산(+0.8%)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6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1.5로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천안의 학군수요 및 직장인, 학생수요가 꾸준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아산의 산업단지내 직장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소형을 중심으로 상승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0.5%), 아산(0.7%)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 [토지거래]

- 6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2,5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9%, 전월대비 8.3% 각각 하락
  - 토지거래 면적은 17,541천㎡로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전월대비 25.9% 증가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필 지	14,699	14,128	15,022	13,639	12,503	-14.9	-8.3
면 적	19,110	18,932	14,986	13,931	17,541	-8.2	25.9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통계, 국토해양부.

## 해외 경제 동향(요약)



- 해외경제는 미국 등이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부진 지속, 신흥국은 성장세 다소 둔화
- 그리스는 재정긴축 등 구제금융 협상 내용의 이행을 지지하는 신민당이 집권하면서 유로존 탈퇴 우려가 단기적으로 완화

### 미국

-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개선세가 둔화되고 기업활동 지표 등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 휘발유 가격 안정 등으로 개선 추세이던 소비심리가 6월중 하락

### 중국

- 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내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 둔화
-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증가율 다소 반등

### 일본

- 산업생산이 부진하며, 소매판매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
-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LNG·석유 등 에너지원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규모 확대

### 유로지역

-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감소, 수출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실업률이 '97.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생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완만한 경기침체(mild recession) 지속

#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2.2%(전분기대비)를 나타냄
- 5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
  - 5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보다 감소하였고, 소매판매 역시 0.2% 감소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7%, 생산자물가는 0.7% 각각 증가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12월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실업률은 8.2%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1%p 증가
  - 비농업부문 취업자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 둔화
  -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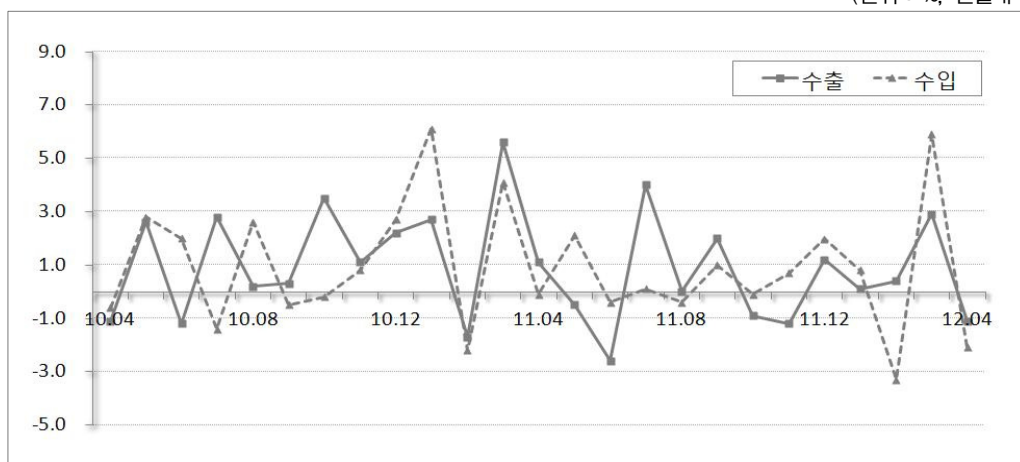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산업생산		4.1	0.9	0.6	0.4	-0.5	1.0	-0.1
소매판매		8.0	0.0	0.6	1.0	0.4	-0.2	-0.2
물가 <sup>1)</sup>	생산자 <sup>2)</sup>	6.0	4.7	4.1	3.3	2.8	1.9	0.7
	소비자	3.2	3.0	2.9	2.9	2.7	2.3	1.7
무역	수 출	16.2	1.2	0.1	0.4	2.9	-1.1	-
	수 입	15.6	1.9	0.8	-3.3	5.9	-2.1	-
실업률 <sup>3)</sup>		9.0	8.5	8.3	8.3	8.2	8.1	8.2
주가지수 <sup>4)</sup>		12,217.6	12,217.6	12,632.9	12,952.0	13,212.0	13,213.6	12,393.5

주 : 1) 전년동월대비 2) 최종재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7),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6), 한국은행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8.1%(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5월 산업생산 9.6%, 소매판매 13.8%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5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 지난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자물가는 11월부터 상승폭 축소가 지속되다 3월부터 감소세 지속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3%,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7% 각각 증가
  -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증가율 다소 반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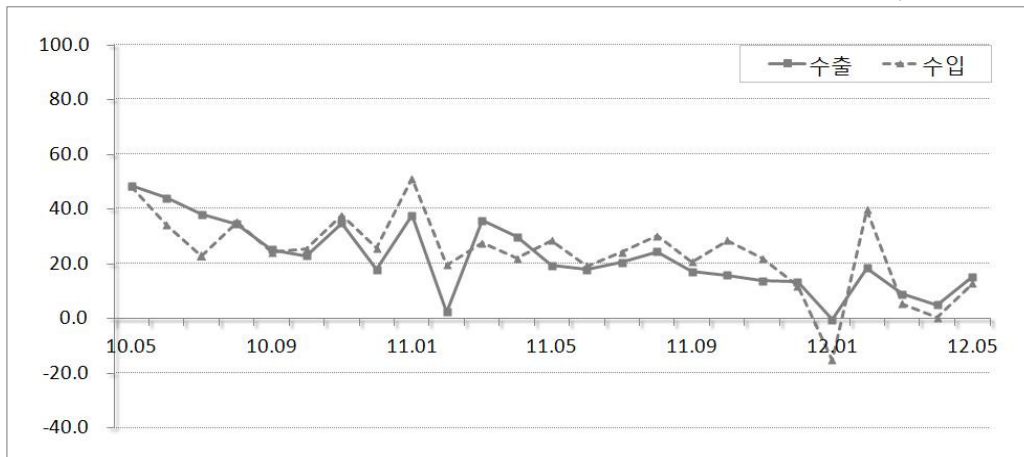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산업생산	13.9	13.9	-	11.4	11.9	9.3	9.6
소매판매	17.1	18.1	-	14.7	15.2	14.1	13.8
물가	생산자	6.1	1.7	0.7	0.0	-0.3	-0.7
	소비자	5.4	4.1	4.5	3.2	3.6	3.4
무역	수 출	20.3	13.3	-0.5	18.4	8.9	4.9
	수 입	24.9	11.8	-15.3	39.7	5.3	0.3
주가지수 <sup>1)</sup>	2,199.42	2,199.42	2,292.61	2,428.49	2,262.79	2,396.32	2,372.23

주 : 1)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7),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6), 한국은행.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3. 일본

- 일본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2.8%(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5월 수출은 10.0%, 수입은 9.3% 전년동월대비 증가
  -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LNG·석유 등 에너지원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규모 확대
- 4월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0.2% 증가,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 소매판매 증가폭이 둔화되어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실업률은 4.6%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1%p 상승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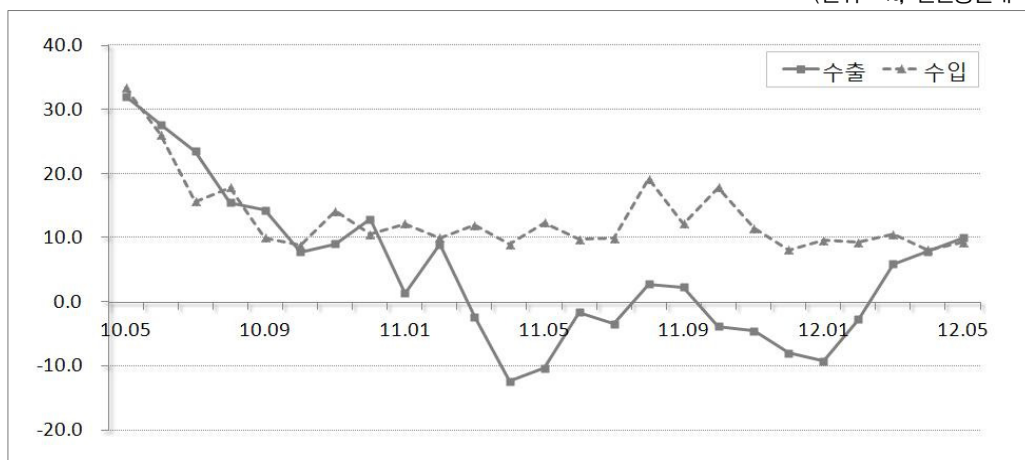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산업생산 <sup>1)</sup>	-3.5	2.3	0.9	-1.6	1.3	0.2	-
소매판매	-1.2	2.5	1.8	3.4	10.3	5.7	-
물가	생산자	2.0	1.1	0.5	0.6	0.5	-0.3
	소비자 <sup>2)</sup>	-0.3	-0.2	0.1	0.3	0.5	0.4
무역	수출	-2.7	-8.0	-9.2	-2.7	5.9	7.9
	수입	12.0	8.1	9.6	9.3	10.6	8.1
실업률 <sup>3)</sup>	4.6	4.5	4.6	4.5	4.5	4.6	-
주가지수 <sup>4)</sup>	8,455	8,455	8,803	9,723	10,084	9,521	8,543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2005=100 3)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7),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6), 한국은행.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2년 1/4분기 성장률 0.0%(전기대비)를 나타냄
- 4월 산업생산 0.8%, 소매판매 1.2% 전월대비 감소
- 4월 수출 1.3%, 수입 3.0% 전월대비 각각 감소
- 실업률은 11.0%를 나타냄
  - 실업률이 '97.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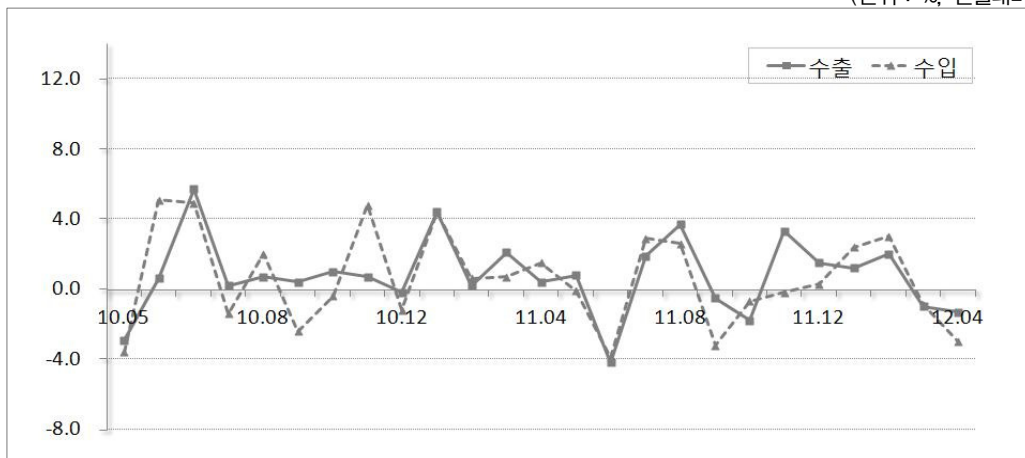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sup>P</sup>	4월 <sup>P</sup>	5월 <sup>P</sup>
산업생산 <sup>1)</sup>	3.6	-0.8	-0.2	0.7	-0.1	-0.8	-
소매판매	-0.6	-1.3	1.1	-0.3	0.4	-1.2	-
물가 <sup>2)</sup>	생산자	5.9	4.3	3.9	3.7	3.5	2.6
	소비자	2.7	2.7	2.7	2.7	2.7	2.6
무역	수출	13.4	1.5	1.2	2.0	-1.0	-1.3
	수입	12.9	0.3	2.4	3.0	-0.9	-3.0
실업률 <sup>3)</sup>	10.2	10.7	10.8	10.9	11.0	11.0	-
주가지수 <sup>4)</sup>	2,316.6	2,316.6	2,416.7	2,512.1	2,477.3	2,306.4	2,118.9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7),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동향(2012.6), 한국은행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 Chungnam Economic Trends

## 경제일지







# 충남경제일지

## ['12.6.11] 난징서 '우수상품전시상담회' 개최

- 6. 14 ~ 6. 15일 중국 난징시에서 도내 41개 기업이 참가하는 '2012 상반기 충남 우수상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 800여 바이어와 수출상담 계약 체결
  - 참가 기업 유형은 건축자재와 농식품, 화장품 업체가 각각 6개로 가장 많고, 전기 전자와 수산품이 각각 4개, 의료기기와 섬유류가 각각 3개, 화학제품과 인삼은 각각 2개, 기타 5개 등
  -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우수상품전시상담회는 태국방콕에서 동남아바이어를 대상으로 전시상담회 진행계획

## ['12.6.12] 중국 길림성과 '인삼산업 교류' 모색

- 도청을 방문한 중국 길림성인대성무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 도성간 인삼 산업정책 교류 등 협력 방안 논의
  - 길림성은 중국 인삼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3대 재배지역(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중 점유율이 61%로 가장 높은 곳
  - 간담회에서 양 도·성은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인삼산업 정책 교류를 논의했으며,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수입 등록제 폐지 ▲의약품과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중국 인삼의 '식품' 일원화 ▲수입 검역절차 간소화 ▲검역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의견교환

## ['12.6.14] 충남도·논산시(주)동양강철 MOU 체결

-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동양강철그룹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26만4천㎡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기지를 조성해 2017년까지 총 3,200억원을 투입예정이며 (주)동양강철 외 (주)고강알루미늄, (주)KPTU, (주)알루텍 등 3개 계열사와 함께 입주할 계획
  - 2009년 계열사인 (주)현대알루미늄의 논산 연무(양지제2농공단지, 13만3,467㎡) 입지투자에 이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논산 일원에 약 40만㎡의 입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논산이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기지로 부상
  - 동양강철그룹은 2014년까지 논산 연무읍 양지 제2농공단지(13만 3,467㎡)에 (주)현대알루미늄을 주축으로 한 가공설비라인을, 2017년까지는 가야곡 2농공단지(26만4,000㎡)에 (주)동양강철을 주축으로 생산설비라인을 건립해 일괄생산체계를 갖춘 첨단 알루미늄 부품소재 생산단지로 건설한다는 계획

- 협약식에서 발표한 동양강철그룹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생산초기인 2017년에 매출 1조 2천억원, 고용 2,300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매출 1조 9,400억원, 고용 3,000명 목표

## ['12.6.14] 농어촌 환경개선에 394억원 투입

- 도는 3년간 394억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 4개 분야 8개 과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명은 '환경과 함께 해요 희망의 3농혁신'
  - 주요 사업을 보면 ▲농어촌지역 폐슬레이트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 ▲환경위해성 관리 및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등 환경보건 관리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 환경개선 ▲농어촌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조성으로 정주환경 개선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마련
- 분야별 추진내용을 보면, '환경관리' 분야에는 ▲농어촌 폐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확대(2012년 467동 → 2014년 1,500동)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및 건강관리 지원(143명 → 250명) ▲농어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강화(228개소 → 550개소) 등 3개 사업 추진, 환경개선' 부문은 ▲농어촌지역 법적 규모 미만 보육 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시범사업 ▲농어촌지역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원 등 2개 사업, '환경지도' 부문은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쓰레기 투기 감시 등 쾌적한 환경조성 등 1개 사업, 자원순환' 분야는 ▲쓰레기 없고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환경 조성 ▲농어촌폐기물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2개소 확충 ▲농어촌지역 숨은 자원 찾기운동 확산 및 활성화 ▲폐가전·가구 재활용으로 자원회수 연간 11,000톤 ▲농어촌지역 폐비닐 연간 20,000톤 및 농약빈병 600만개 수거 등 5개 사업

## ['12.6.18] 中최대 약제유통사와 대규모 인삼수출 계약

- 충남인삼 해외 수출 확대와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홍콩 순방 중 도내 인삼 수출업체와 중국·홍콩 업체와 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수출계약 성사
  - 18일 홍콩 리갈(REGAL) 호텔에서 열린 '충남 인삼 우수성 홍보·설명회'에서 도내 인삼 수출업체인 성신 BST(대표 홍원표)가 중국 업체인 구주통(九州通)과 400만 달러 규모의 구매의향서를 체결
    - ※ 구주통은 지난해 320억 위안(6조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국 최대 약제유통업체
  - 또한, 홍콩 업체인 대덕강원(大德康元)과 200만 달러 규모의 구매의향서 체결

## ['12.6.20] 16개 대기업 참가,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201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리솜 스파캐슬리조트에서 개최
  - 상담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서 삼성전자,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동서발전 등 16개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참여해 도 내외 140개의 중소기업 관계자와 상담
  - 특히 LG전자, 롯데마트는 구매방침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 유통업체에게 큰 호응

## ['12.6.20] 가뭄 극복 2차 예산 134억원 긴급 투입

-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자금을 긴급 투입할 계획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농어촌 공사 비상근무 및 현장 지원 등 총력지원 체제 강화
  -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농식품부 용수원 개발 예산 33억7,500만원과 도 예비비 50억원, 시군비 50억원 등 총 133억7,500만원
  - 앞서 도는 93억3,000만원을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자금으로 긴급 지원
- 현재까지 긴급 용수원 개발 상황은 관정 400공, 하상굴착 423개소, 가물막이 192개소가 완료
  - 관정 66공과 용수원 개발 325개소는 개발 추진 중이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농어촌 공사 착정기 5대와 민간 소유 61대가 긴급 투입돼 물길 찾기에 총력 추진
  - 지금까지 인력 1만3,771명과 소방차 61대를 비롯 장비 3,650대가 현장에 투입

## ['12.6.26] ‘고품질 김’ 생산 위해 MOU체결

- 서천군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어업인 단체 및 시군 행정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한 MOU(업무 협약서)를 체결
  - 협약에는 도 수산과, 서천군 해양수산과,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서천군김양식어업인 연합회, 송림어촌계, 송석어촌계 등 14개 기관·단체가 참여
- 협약의 주요내용은 ▲법규상(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양식어장 시설 기준의 준수 ▲고품질 김 생산시 유기산제 사용 ▲기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상호 노력 등

#### ['12.7.4] ‘물 부족 해결’ 국비 9,477억원 지원 요청

- 도는 중장기 용수원 개발 및 수질 개선을 위해 7개 사업 9,477억원의 국비 지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
  - 이번 요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안희정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화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화상회의에서 안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관정 개발 및 저수지·소류지 준설 ▲담수호 수질 관리 ▲금강물-보령·예당댐 관로 연결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좋은 건의”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
  - 건의 사업 및 예산을 자세히 보면, ‘간월호→ 서산·태안·홍성 용수공급’은 A·B지구 담수호를 활용해 상습 가뭄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 사업
  - 세부 사업으로는 용수로 330km와 양수장 10개소, 간월·부남 연결 수로 6km 설치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도는 4,500억원의 국비를 요청

#### ['12.7.9]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제정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개념을 명확히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규정

## 주요 민간 기관 · 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_** <http://www.seri.org>
  -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 배경과 전망
  - 중남미 경제의 방향
  -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 클라우드펀딩
  - 한국기업의 Open & Global R&D 추진현황과 선도사례 분석
  - 중국제 부품소재장비의 부상과 영향
  - 한국 금융시장, 대외충격에 강해졌나?
  - 중소기업의 디지털 변신 조건
- **현대경제연구소\_** <http://hri.co.kr>
  - 국내 양극화현상의 실체
  - 상반기 국내 경기 특징과 수정 성장 전망
  - 가뭄으로 인한 물가 불안 대응 방향
  -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영향
- **LG경제연구소\_** <http://www.lgeri.com>
  - 플랫폼 생태계에 부는 수직 통합 바람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한다
  - 인공지능 기술의 걸음마가 시작되었다
  -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올해 연간 성장률 3.0% 예상)
  - 보상, 매력적이지 않으면 효과도 적다
  -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
  - 디스플레이산업 진검 승부 2~3년 내 온다
  - 모바일 액세서리, Styler에서 Enabler로
  - 내수 산업, '불황 속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
- **한국금융연구원\_** <http://www.kif.re.kr>
  -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 신용상당기능의 활성화 방안
- **한국은행\_** <http://www.bok.or.kr>
  -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배경 및 평가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
- **대한상공회의소\_** <http://www.korcham.net>
  -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2012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조사
  - 고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 조사
  - 2012년 하반기 프랜차이즈산업 경기전망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Chungnam Economic Trends

### 경제지표







#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GDP) <sup>1)</sup>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71,282
국민총소득 (GNI) <sup>1)</sup>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405,039
1인당 GNI <sup>1)</sup>	억원	2,010	2,113	2,175	2,378	2,492
경제성장률 <sup>2)</sup>	%	5.1	2.3	0.3	6.3	3.6
산업구조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광공업		27.5	28.1	28.0	30.5	31.4
전가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2.0
건설업		7.4	7.0	6.9	6.3	5.9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1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9	79.9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건설업		7.9	7.7	7.3	7.4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실업률	%	3.2	3.2	3.6	3.7	3.4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505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0,950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4,377
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456
경상이전수지		△3,527	△674	△712	△3,079	△2,523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7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4.1
정부비중		10.6	9.3	6.8	7.4	7.6
총자본형성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2.9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일일 경제지표 (2012.7.2기준)

## 금리

구 분	'10말	'11말	12.5말	6.28	6.29	7.2	전일비	'11말비
콜금리(1일), %	2.49	3.27	3.26	3.25	3.25	3.27	0.02	0.00
CD(91일), %	2.80	3.55	3.54	3.54	3.54	3.54	0.00	△0.01
국고채(3년), %	3.38	3.34	3.32	3.26	3.30	3.30	0.00	△0.04
국고채(5년), %	4.08	3.46	3.43	3.38	3.42	3.41	△0.01	△0.05
회사채(3년, AA-), %	4.27	4.21	3.92	3.84	3.87	3.87	0.00	△0.34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액억원)	638,134	410,274	15,805	1,568	△1,433	4,129	5,562	-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5말('12.5.1~5.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 주가

구 분	'10말	'11말	12.5말	6.28	6.29	7.2	전일비	'11말비
KOSPI지수	2,051.00	1,825.74	1,843.47	1,819.18	1,854.01	1,851.65	△0.13%	1.42%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53,969	36,321	46,606	31,955	43,916	35,654	△8,262	-
KOSDAQ지수	510.69	500.18	471.94	485.91	489.16	490.43	0.26%	△1.95%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228,939	△95,731	△33,847	△685	△1,629	399	2,028	-

※ 기간중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5말('12.5.1~5.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 환율

구 분	'10말	'11말	12.5말	6.28	6.29	7.2	전일비	'11말비
₩/US\$	1,134.80	1,151.80	1,180.30	1,154.20	1,145.40	1,146.10	0.06	△0.49
선물환(NDF, 1월물)	1,137.00	1,154.70	1,183.00	1,156.80	1,147.80	1,148.70	0.08	△0.52
₩/CNY	170.43	182.29	185.36	181.59	180.26	180.52	0.14	△0.97
₩/EUR	1,501.68	1,488.93	1,462.63	1,443.56	1,442.29	1,446.61	0.30	△2.84
₩/¥100	1,393.59	1,481.22	1,498.41	1,452.92	1,443.30	1,441.27	△0.14	△2.70
¥/US\$	81.43	77.76	78.77	79.44	79.36	79.52	0.20	2.26
US\$/EUR	1.3233	1.2927	1.2392	1.2507	1.2592	1.2622	0.24	△2.36
CNY/US\$	6.6100	6.3248	6.3754	6.3633	6.3559	6.3504	△0.09	0.40

※ '11년 평균 환율 : (₩/US\$) 1,108.8원 (₩/¥100) 1,388.2원 ※ '12년 평균 환율('12.1.1~현재) : (₩/US\$) 1,141.6원 (₩/¥100) 1,433.1원

##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0말	'11말	12.5말	6.28	6.29	7.2	전일비	'11말비
LIBOR(3월, \$)	0.30	0.58	0.47	0.46	0.46	-	0.00	△0.12
T/NOTE(10년, %)	3.29	1.88	1.56	1.58	1.65	-	0.07	△0.23
DOW	11,578	12,218	12,393	12,602	12,880	-	2.20%	5.42%
NIKKEI	10,229	8,455	8,543	8,874	9,007	9,003	△0.04%	6.48%
SANGHAI COMP	2,808	2,199	2,372	2,196	2,225	2,226	0.03%	1.21%
외평채가산금리(bp, 13년물)	175	165	114	104	103	-	△1	△62
CDS(5년, bp)	95	161	142	130	123	-	△7	△38
CRS(1년, %)	1.43	2.05	2.19	2.23	2.27	2.29	0.02	0.24

##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0말	'11말	12.5말	6.28	6.29	7.2	전일비	'11말비
DUBAI(\$/배럴)	88.80	104.89	101.59	91.24	91.77	92.89	1.12	△12.00
WTI 선물(\$/배럴)	94.84	98.83	86.53	80.21	77.69	84.96	7.27	△13.87
Brent 선물(\$/배럴)	94.75	107.38	101.87	93.5	91.36	97.80	6.44	△9.58
원당(센트/파운드)	32.12	23.3	19.42	20.95	20.53	21.01	2.34%	△9.83%
밀(센트/부셀)	794	653	644	751	746	757	1.51%	16.01%
대두(센트/부셀)	1,403	1,208	1,340	1,412	1,404	1,428	1.73%	18.22%
옥수수(센트/부셀)	629	647	555	633	632	635	0.40%	△1.82%
동(\$/톤)	9,665	7,570	7,499	7,336	7,410	7,586	2.37%	0.20%
알루미늄(\$/톤)	2,468	1,992	2,014	1,850	1,873	1,868	△0.27%	△6.25%

※ '11년 평균 유가 : (Dubai) 105.98\$, (WTI) 95.14\$. ※ '12년 평균 유가('12.1.1~현재) : (Dubai) 111.24\$, (WTI) 98.22\$.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역내총생산(GRDP) <sup>1)</sup>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
전국대비 구성비 <sup>1)</sup>	%	5.66	5.65	6.12	6.51	—
GRDP 성장률 <sup>2)</sup>	%	7.6	7.0	8.9	12.8	—
1인당 GRDP	천원	28,482	29,826	33,381	38,010	—
산업구조 <sup>3)</sup>	—					
농림어업	%	6.7	6.3	5.7	5.1	—
광공업		45.9	47.0	51.0	54.7	—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
건설업		8.7	9.3	8.1	7.5	—
서비스업 및 기타		34.5	34.9	31.7	28.9	—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건설업		6.6	5.7	5.8	5.6	6.4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실업률	%	2.2	2.4	3.0	2.9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천안시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공주시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보령시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아산시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서산시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논산시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계룡시 <sup>1)</sup>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당진시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금산군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연기군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부여군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서천군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청양군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홍성군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예산군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태안군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충청남도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9 05	116.9	0.3	-6.0	-4.2	94.4	-0.0
06	118.6	1.4	-2.9	-2.9	95.4	1.0
07	120.2	1.4	-0.1	-1.6	96.3	0.9
08	121.5	1.0	2.1	-0.3	97.0	0.6
09	123.1	1.4	4.8	1.4	97.9	0.9
10	124.6	1.2	7.2	3.0	98.7	0.8
11	125.9	1.0	9.0	4.5	99.4	0.6
12	126.6	0.6	9.8	5.3	99.5	0.2
2010 01	127.3	0.5	10.2	6.0	99.6	0.1
02	128.2	0.7	10.6	6.8	99.9	0.3
03	129.0	0.6	10.4	7.4	100.1	0.2
04	129.6	0.5	9.7	7.8	100.1	0.0
05	130.2	0.5	8.9	8.2	100.2	0.0
06	131.0	0.7	8.5	8.5	100.4	0.2
07	132.0	0.8	8.3	8.8	100.7	0.3
08	132.8	0.6	7.9	8.7	100.8	0.1
09	133.3	0.4	7.3	8.2	100.7	-0.0
10	133.3	0.0	6.0	7.3	100.3	-0.5
11	133.4	0.0	4.9	6.4	99.8	-0.4
12	134.3	0.7	5.3	6.2	100.0	0.2
2011 01	136.1	1.4	7.0	6.8	100.9	0.9
02	137.0	0.6	7.2	6.7	101.1	0.2
03	137.1	0.1	6.3	6.1	100.8	-0.4
04	137.2	0.0	5.3	5.6	100.3	-0.4
05	138.0	0.6	5.6	5.7	100.5	0.1
06	139.1	0.8	6.2	6.0	100.8	0.3
07	139.5	0.3	5.8	5.8	100.7	-0.1
08	139.7	0.1	5.2	5.3	100.4	-0.3
09	140.3	0.4	5.2	5.2	100.3	-0.0
10	141.0	0.5	5.4	5.3	100.4	0.1
11	141.6	0.4	5.3	5.2	100.4	-0.0
12	142.0	0.3	4.9	5.0	100.2	-0.2
2012 01	142.5	0.4	4.7	4.9	100.1	-0.1
02	143.1	0.4	4.7	4.9	100.1	0.0
03	143.0	-0.1	3.8	4.3	99.6	-0.6
04	143.8	0.6	4.3	4.4	99.7	0.2
05	145.1	0.9	5.3	4.9	100.2	0.5

자료 : 2012년 5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12.7.

##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1 2/4	71.8	95.7	67.6	100.0	69.6	93.5
3/4	71.4	95.8	63.4	94.2	68.5	91.0
4/4	64.3	94.2	67.8	94.2	69.1	89.2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2010 06	59.5	78.8	57.1	75.0	59.5	78.9
07	66.7	73.8	60.7	76.2	70.0	82.9
08	77.4	85.0	75.0	86.5	73.8	82.5
09	97.6	125.6	103.6	125.6	86.9	102.4
10	66.7	114.3	67.9	121.3	69.0	103.8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	72.0	-	68.1	-	69.2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1 1/4	355,080	31.5	21.1	225,657	15.2	15.9
2/4	350,384	37.7	-1.3	222,694	18.4	-1.3
3/4	366,540	32.1	4.6	246,878	13.0	10.9
4/4	378,808	29.2	3.3	223,078	14.6	-9.6
2012 1/4	380,597	7.2	0.5	250,437	11.0	12.3
2010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170	4.9	6.4	80,906	3.7	6.5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9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9	97.1	2.7	96.7	2.0	81.6	5.7	97.2	2.8	96.6	2.3	97.1	2.7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1 2/4	103.7	4.0	104.1	4.3	101.8	5.9	103.6	3.8	103.9	4.2	104.0	4.4
3/4	104.9	4.5	105.4	5.0	111.6	7.6	104.8	4.4	104.9	4.5	105.2	4.8
4/4	104.8	3.9	105.2	4.1	100.8	-8.3	104.7	3.8	104.9	4.0	105.3	4.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2010 06	99.6	2.6	99.6	2.9	92.6	12.6	99.7	2.5	99.7	3.7	99.5	2.5
07	99.9	2.5	99.8	2.6	93.7	13.1	100.0	2.4	99.9	3.2	99.9	2.5
08	100.3	2.7	100.3	2.9	101.6	20.2	100.3	2.6	100.3	3.3	100.4	2.7
09	100.9	3.2	101.2	3.7	115.8	35.4	101.0	3.2	101.0	3.9	100.8	3.1
10	101.1	3.7	101.5	4.4	116.6	37.4	101.1	3.5	101.1	4.2	101.2	3.8
11	100.6	3.0	100.5	3.3	106.7	31.2	100.6	2.9	100.6	3.3	100.7	3.1
12	101.1	3.2	101.2	3.6	106.4	26.8	101.1	3.1	101.0	3.4	101.1	3.4
2011 01	102.2	3.5	102.6	4.3	109.4	23	102.1	3.4	102.2	3.7	102.3	3.6
02	103.2	4.2	103.9	5.2	110.9	20.7	103.1	4.1	103.2	4.3	103.4	4.4
03	103.5	4.3	104.2	5.1	110.6	16.2	103.4	4.3	103.8	4.4	103.9	4.5
04	103.5	3.9	104.2	4.4	106.2	7.8	103.5	3.8	103.6	3.9	103.8	4.2
05	103.7	3.9	103.9	3.9	100.2	3.0	103.6	3.7	103.9	4.1	104.0	4.4
06	103.9	4.3	104.2	4.6	99.1	6.5	103.8	4.1	104.1	4.4	104.3	4.8
07	104.4	4.5	104.6	4.8	105.8	12.1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06	106.7	2.7	107.0	2.7	110.4	11.4	106.8	2.9	105.9	1.7	106.7	2.3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1 2/4	14,847	10.5	7.4	8,600	38.6	12.8	6,247
3/4	15,449	5.6	4.1	8,918	40.2	3.7	6,531
4/4	15,834	10.9	2.5	8,497	29.1	-4.7	7,337
2012 1/4	14,530	5.1	-8.2	8,687	13.9	2.2	5,843
2/4	14,813	-0.2	1.9	8,852	2.9	1.9	5,961
2010 06	4,593	40.9	2.5	2,363	41.6	22.6	2,230
07	4,898	41.0	6.6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8	2,071	25.2	0.3	2,864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56	40.9	6.3	2,177
02	4,220	15.6	-10.8	2,234	18.2	-12.6	1,986
03	4,872	10.7	15.5	2,835	38.8	26.9	2,037
04	4,868	11.7	-0.1	2,688	40.2	-5.2	2,180
05	5,022	12.0	3.2	2,781	44.3	3.5	2,241
06	4,957	7.9	-1.3	3,131	32.5	12.6	1,826
07	5,089	3.9	2.7	2,826	36.9	-9.7	2,263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4	-3.6	-14.3	2,781	8.8	-4.8	1,783
02	4,826	14.4	5.7	3,002	38.8	11.5	1,724
03	5,140	5.5	6.5	2,804	-1.1	-9.6	2,336
04	4,741	-2.6	-7.8	2,971	10.6	6.0	1,770
05	5,067	0.9	6.9	3,117	12.1	4.9	1,950
06	5,005	1.0	-1.2	2,764	-11.7	-11.3	2,241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 고용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991	-0.5	585	406	62.4	-1.3	74.6	50.5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1 2/4	1,061	3.2	626	435	64.8	1.0	77.4	52.5
3/4	1,044	0.8	616	428	63.4	-0.7	75.7	51.4
4/4	1,031	2.3	612	419	62.2	0.1	74.6	50.0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2010 06	1,037	0.0	598	439	64.3	-1.0	75.1	53.9
07	1,037	2.5	601	436	64.2	0.6	75.3	53.4
08	1,032	1.6	603	428	63.8	0.0	75.6	52.4
09	1,039	0.6	604	435	64.2	-0.6	75.6	53.1
10	1,033	-0.6	606	427	63.8	-1.4	75.7	52.1
11	1,020	2.2	602	419	62.9	0.4	75.1	51.0
12	968	3.1	579	389	59.5	0.8	72.1	47.3
2011 01	923	-0.9	558	365	56.7	-1.4	69.4	44.3
02	955	2.0	579	376	58.6	0.3	71.8	45.6
03	1,012	5.8	608	405	62.0	2.4	75.3	49.0
04	1,042	2.7	621	421	63.7	0.6	76.9	50.9
05	1,064	3.2	628	436	65.0	0.9	77.6	52.7
06	1,076	3.7	629	447	65.6	1.3	77.6	53.9
07	1,051	1.4	619	432	63.9	-0.3	76.2	52.0
08	1,043	1.1	619	424	63.3	-0.5	75.9	50.9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1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대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09	961	-1.2	7	131	212	253	112	74	61	112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1 2/4	1,040	3.6	9	142	216	260	123	91	68	131
3/4	1,021	1.4	11	136	214	260	120	92	67	122
4/4	1,009	2.8	8	136	219	263	120	93	63	107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2010 06	1,015	1.4	8	139	221	257	118	89	62	121
07	1,007	2.8	12	144	218	251	117	87	59	119
08	1,006	1.7	10	144	214	252	116	87	61	124
09	1,006	0.0	11	144	213	253	117	86	61	122
10	1,005	-0.7	8	143	213	254	120	89	59	119
11	995	2.4	8	143	214	253	119	88	60	111
12	942	3.3	8	144	214	248	114	84	54	76
2011 01	899	0.9	11	143	212	242	107	80	47	56
02	924	3.1	12	142	213	243	110	79	56	68
03	982	5.3	13	137	213	249	116	85	63	107
04	1,017	2.8	10	140	213	257	118	91	67	122
05	1,046	3.9	8	143	216	261	124	91	70	135
06	1,057	4.1	9	142	220	264	127	91	69	136
07	1,027	2.0	12	141	217	256	120	90	66	124
08	1,019	1.3	13	134	209	261	122	92	67	122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1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자료 : 행정구역별 연령별취업자, 통계청.

##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009	961	-1.2	181	164	93	56	188	179
2010	974	1.3	164	185	99	55	177	296
2011	1001	2.8	163	204	97	64	177	297
2011 2/4	1,040	3.6	198	200	99	64	175	305
3/4	1,021	1.4	182	205	93	66	177	299
4/4	1,009	2.8	152	215	93	71	185	293
2012 1/4	961	2.8	99	208	98	65	191	300
2/4	1,084	4.3	183	206	98	70	197	330
2010 06	1,015	1.4	195	185	104	51	176	304
07	1,007	2.8	189	190	99	50	180	301
08	1,006	1.7	194	187	100	52	172	303
09	1,006	0.0	195	182	103	50	168	308
10	1,005	-0.7	197	190	99	56	166	297
11	995	2.4	176	191	100	56	170	302
12	942	3.3	115	199	102	55	173	297
2011 01	899	0.9	90	196	103	52	170	289
02	924	3.1	108	197	102	56	172	289
03	982	5.3	159	196	103	60	172	293
04	1,017	2.8	182	201	98	62	172	301
05	1,046	3.9	206	201	99	63	173	305
06	1,057	4.1	205	200	99	67	179	308
07	1,027	2.0	185	201	94	63	180	305
08	1,019	1.3	181	205	92	66	180	295
09	1,016	1.0	180	207	94	67	171	297
10	1,038	3.3	189	213	92	70	180	295
11	1,023	2.8	162	217	93	70	187	294
12	965	2.4	105	214	95	72	189	290
2011 01	930	3.5	80	211	97	67	190	287
02	938	1.5	82	208	98	63	191	296
03	1,015	3.4	136	205	98	67	191	319
04	1,069	5.2	176	203	96	70	192	332
05	1,094	4.6	188	209	99	70	199	330
06	1,090	3.1	186	205	98	71	303	329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3.0	0.6	3.5	2.3	29	25.1	20	9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1 2/4	1.9	-0.5	1.9	2.0	21	-14.9	12	9
3/4	2.2	-0.6	2.5	1.9	23	-20.1	15	8
4/4	2.1	-0.5	2.5	1.6	22	-16.4	15	7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2010 06	2.1	-1.4	2.5	1.6	22	-39.7	15	7
07	2.9	-0.3	2.9	2.8	30	-7.8	18	12
08	2.4	-0.2	2.5	2.3	25	-4.2	15	10
09	3.2	0.6	3.4	2.9	33	22.3	20	13
10	2.7	0.0	3.1	2.2	28	1.1	19	9
11	2.4	-0.3	2.6	2.3	25	-6.4	15	10
12	2.6	-0.3	2.5	2.8	26	-6.6	15	11
2011 01	2.6	-1.8	2.6	2.6	24	-41.3	15	9
02	3.3	-1.0	2.4	4.6	31	-21.8	14	17
03	3.0	0.5	2.8	3.2	30	24.5	17	13
04	2.4	-0.1	2.4	2.4	25	-0.8	15	10
05	1.7	-0.8	1.7	1.7	18	-28.1	11	7
06	1.7	-0.4	1.6	1.8	19	-15.5	10	8
07	2.3	-0.6	2.5	1.9	24	-18.9	16	8
08	2.3	-0.1	2.6	1.8	24	-6.0	16	8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1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09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1 1/4	0.41	0.55	0.69	0.09	0.16	0.00
2/4	0.11	0.21	0.05	0.02	0.04	0.00
3/4	0.22	0.25	0.12	0.12	1.44	0.01
4/4	0.40	0.67	0.09	0.34	0.91	0.00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12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	0.14	-
05	0.57	0.27	0.00	-	0.29	-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9	7,203,977	-15.6	5,302,140	-7.12	270,249	35.1	189,970	-0.1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141,946	-25.3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88,210	-37.9
2011 2/4	1,987,829	-5.2	2,080,921	9.3	58,090	16.8	22,308	-41.5
3/4	2,920,380	101.8	1,621,229	26.0	40,661	-1.9	19,828	-42.8
4/4	3,644,017	115.2	3,879,427	122.6	49,723	-32.4	20,765	-28.7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2	45,709	2.7	20,407	-19.4
2/4	2,593,521	30.5	2,561,628	23.1	46,458	-20.0	-	-
2010 06	866,573	11.0	751,798	72.4	19,042	-25.8	12,513	-0.9
07	580,512	55.6	461,472	39.2	16,773	-26.7	12,222	-2.3
08	487,208	-42.4	432,427	-5.8	14,787	-21.5	11,593	-5.1
09	379,786	-28.2	393,149	3.2	9,891	-44.4	10,851	-6.4
10	400,493	-8.9	464,780	-3.0	19,172	23.3	10,285	-5.2
11	812,945	64.2	666,098	34.5	21,637	18.6	9,824	-4.5
12	480,231	-28.6	591,027	24.4	32,469	38.39	9,020	-8.2
2011 01	414,632	3.7	255,721	-2.1	14,265	-3.5	8,750	-37.3
02	403,350	-12.7	358,003	-12.7	12,164	-28.12	8,477	-35.7
03	610,148	13.4	700,517	-0.2	18,073	-11.28	8,082	-37.4
04	593,974	-6.9	724,923	33.7	20,501	-11.29	7,620	-41.3
05	723,947	22.4	700,162	14.9	18,041	11.01	7,459	-40.9
06	669,908	-22.7	655,836	-12.8	19,548	2.6	7,229	-42.2
07	522,989	-9.9	427,285	-7.4	15,056	-10.2	6,903	-43.5
08	1,504,930	208.9	456,491	5.6	13,713	-7.3	6,546	-43.5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2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1.6=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9 06	95.5	0.2	0.0	92.3	99.5	97.4	89.2	1.1	-0.1	86.0	92.0	93.3
07	95.4	-0.1	0.0	92.3	99.5	97.4	89.4	1.0	0.2	86.1	92.3	93.4
08	95.4	-0.3	0.0	92.4	99.1	97.4	89.4	0.5	0.1	86.2	92.3	93.4
09	95.7	-0.8	0.3	92.7	99.4	98.1	89.9	0.1	0.6	86.4	93.0	94.0
10	96.2	-0.5	0.5	93.0	100.0	98.3	90.2	0.0	0.3	86.7	92.9	96.3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10	103.4	7.2	0.9	104.8	101.3	101.7	104.6	10.9	1.1	106.3	102.1	102.7
11	104.4	8.1	1.0	106.5	101.3	101.7	106.2	12.1	1.5	108.9	102.1	102.7
12	104.8	8.4	0.4	107.2	101.3	101.7	106.8	12.3	0.6	109.9	102.1	102.7
2012 01	105.3	8.8	0.5	108.0	101.1	101.7	107.5	12.7	0.6	111.0	102.2	102.7
02	105.7	8.9	0.4	108.6	101.1	101.9	108.1	12.5	0.6	111.9	102.2	102.7
03	106.4	8.8	0.6	109.6	101.2	102.2	109.0	12.0	0.8	113.1	102.2	103.3
04	107.5	8.8	1.0	110.3	101.2	102.5	110.3	11.8	1.2	115.2	102.2	103.6
05	108.0	8.5	0.5	112.3	101.1	102.7	111.0	11.5	0.6	116.3	102.1	103.9
06	108.6	8.6	0.6	112.8	101.1	103.6	111.5	11.5	0.5	116.9	102.4	104.6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 Chungnam Economic Trends

##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 2012년 하반기 원산지관리사 교육인원 모집

- **교육일정** : '12. 8. 22 ~ 8. 24(3일) ※ 접수기간 '12. 7. 9 ~ 8. 8
- **주 관**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국제원산지정보원  
※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http://www.origin.or.kr)) 위탁 교육
- **대 상** : 도내 기업체 및 기관 총 50명  
- 공고일 현재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041-539-4542)로 문의

### 2012년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참가업체 모집

- **신청기간** : 2012. 7. 9(월) ~ 7. 20(금) \* 선정통보 7.27(금)  
※ 행사기간 : '12. 8. 16(목) ~ 8. 19(일) / 4일간
- **모집기업** : 20개 기업
- **장 소** : COEX, 서울시 소재
- **주 최** : 메세 E&D, 대한급식신문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042-539-4504)로 문의

### 2012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모집

- **신청기간** : 2012. 6. 28(목) ~ 2012. 12. 7(금)
  - 1차 접수기간 : 2012. 6. 28(목) ~ 2012. 7. 31(화), 18:00까지
  - 수시 접수기간 : 2012. 8. 1(수) ~ 2012. 12. 7(금), 18:00까지
-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사업내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
- **지원내용** : 기업당 2명 이내의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서 입력 → 접수증 발급 → 온라인 지원서 출력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02-586-3527)로 문의

## 2012년 부품소재 투자협력 사업

- **지원분야** : 국내외 부품소재기업 등
  - **신청기간** : 수시접수 업체선정 ※ 사업예산 9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7월 ~ 2013년 6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업 : 투자규모, 기술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ITIA가 선정
    - 투자협력네트워크 : 전문성을 고려하여 KITIA가 선정
  - **사업내용** : 선진 부품소재기업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우수한 기술 확보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IR, 방한초청,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서비스 등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투자유치 활동, 유망기업 발굴 및 방한초청 지원, 맞춤형 전문서비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팀(02-6000-7940)로 문의

## 2012 충남 중국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제112회 캔톤페어) 모집

- **모집규모** : 5개사
  - **신청자격** : 충남도 소재 중소제조업체, 세종시 지역 제외
  - **지원사항** : 참가비, 전시품 발송비용, 통역비, 1업체당 1인 항공료의 40%
    - \* 신청기간 : 7. 13일까지
  - **박람회 개요**
    - 때 · 곳 : 2012. 10. 15 ~ 10. 19(5일) / China Import and Export Fair Complex
    - 전기품목 : 기계 장비, 소형 운송기기 및 부품, 기계류, 건축자재, 주방, 육식용품, 전자, IT 제품, 가전, 에너지관련 환경보호제품, 신재료, 전자정보공학 기술을 응용한 하이테크 제품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042-866-0124)로 문의

## 2012년도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변경공고)

- **사업형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지원규모** : 90억
  - **신청기간** : '12. 7. 6 ~ 수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 소상공인 분야 :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 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제품공정개선 지원
    - 취약기업 분야 : 기타 지역내 취약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산학연합회(1661-1357/ 중기R&D 콜센터, 내선3)로 문의



##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11월호

전자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4월호

일본 지진 파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운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ISSUE

경제 동향

경제 일지

경제 지표

부록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객선아

# 농민의 마음에서 소비자의 마음까지



 지역 농산물을 왜 이용해야 하나요?



어디서 온 음식인가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먹거리의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1. 농민과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져, 누가 어떻게 만든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2. 농민이 제대로된 몫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면?

1.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를 알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2. 농민이 농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먹거리 이동에 따른 Co2배출 등 환경적인 문제와 안전성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공주/세종지역 농가들이 모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